

서울시 여성 NGO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책임연구원 : 김희경(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이경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실시된 이후 NGO의 활동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정부감시 및 견제라는 역할을 뛰어넘어 정부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공공서비스 공급자 및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관련 정책들은 여성 NGO와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성장하여 왔습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단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역동적인 곳으로, 여성이 근간이 되는 풀뿌리 모임, 조직, 활동 등이 두드러지게 자라고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변화뿐 아니라 정책 등 공적 영역의 변화까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여성운동 및 활동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성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여성 NGO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활동 영역 및 역할, 활동가의 근무환경, 서울시정의 참여 형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 여성 NGO를 위한 정책적 제안이 이들의 활동 가치를 인정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

Contents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연구범위와 주요개념	5
1) 서울시 여성 NGO	5
2) 젠더 거버넌스	8
4. 연구 추진 체계	11

II 선행연구 검토

1. 여성 NGO 활동	15
1) 생성기	15
2) 확대기	16
2. 풀뿌리 여성조직	17

III 서울시 여성 NGO 현황 및 지원정책

1. 여성 NGO 현황	23
1)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 등록 NGO 현황	23

2) 여성가족부 등록 여성 NGO 현황	24
3) 서울시 여성 NGO 현황	25
4) 풀뿌리 여성조직 현황	27
2. 여성 NGO 지원정책 및 사업	31
1) 여성가족부의 여성 NGO 지원정책	31
2) 서울시의 여성 NGO 지원정책	34
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여성 NGO 지원사업	36

IV 서울시 여성 NGO 실태조사와 분석

1. 설문조사와 FGI 개요	41
1) 설문조사 개요	41
2) FGI 개요	44
2. 기본 현황	47
1) 여성 NGO의 일반적 특성	47
2) 인적·물적 자원 현황	51
3. 정체성 및 주요 역할	60
1)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	60
2) 여성단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63
3) 여성단체의 어려움	66

4. 활동가의 근무환경	67
1) 급여수준	67
2) 근무시간	69
3) 활동지속을 위한 근무여건	72
5. 네트워크	74
1) 네트워크 필요성 및 구축 현황	74
2) 네트워크 성과 및 활성화 방안	79
6. 서울시 사업 참여 및 젠더 거버넌스	81
1) 사업 및 거버넌스 참여 현황	81
2) 실질적 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87
3)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89
7.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93
8. 소결	102

V 결 론

1. 서울시 여성 NGO 지원 방향	107
2. 서울시 여성 NGO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110

참고문헌 _ 122

Abstract _ 124

부 록 _ 129

표 목차

표 III- 1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및 증감율	23
표 III- 2	등록구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24
표 III- 3	여성가족부 등록 여성 NGO 현황	24
표 III- 4	서울시 등록 여성 NGO 현황	25
표 III- 5	서울시 여성분야 NPO 단체 현황	26
표 III- 6	서울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현황(2013년)	27
표 III- 7	서울시 자치구별 풀뿌리 여성조직 분포	30
표 III- 8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금 단체지원사업(2003~2013)	33
표 III- 9	여성발전기금 지원 단체의 소재지별 분포(2009~2013)	33
표 III-10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 NGO 지원현황(1998~2014)	34
표 III-11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한 여성 NGO 지원현황(2012~2014)	35
표 III-12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풀뿌리 여성조직 지원현황(2012~2014)	36
표 III-1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 NGO 지원사업 현황(2003~2014)	37
표 IV- 1	설문조사 주요 내용	42
표 IV- 2	설문응답 단체의 일반적인 특성	43
표 IV- 3	서울시 여성 NGO집단별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FGI 조사 개요	44
표 IV- 4	서울시 여성 NGO집단별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참여단체 특성	45
표 IV- 5	여성 NGO의 전체 구성원 비중	51
표 IV- 6	단체 특성별 여성 NGO 구성원 비중	52
표 IV- 7	예산규모에 따른 인력 규모 차이	54
표 IV- 8	예산확보 방법	56
표 IV- 9	단체특성별 사업비 비중	58
표 IV-10	여성 NGO 상근활동가 주당 평균 근무시간 차이	70
표 IV-11	서울시 사업 및 정책과정 참여방식 중요성	83
표 V- 1	정책분야 및 세부과제	109

그림 목차

■ 그림 I-1 ■ 연구 추진 체계	11
■ 그림 IV-1 ■ 여성 NGO의 활동지역	48
■ 그림 IV-2 ■ 설립연도별 여성 NGO 분포	48
■ 그림 IV-3 ■ 여성 NGO의 법적 형태	50
■ 그림 IV-4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51
■ 그림 IV-5 ■ 여성 NGO의 예산규모	54
■ 그림 IV-6 ■ 예산확보 방법(전체 평균)	55
■ 그림 IV-7 ■ 사업비 비중	57
■ 그림 IV-8 ■ 사무공간의 존재여부 및 소유형태	59
■ 그림 IV-9 ■ 여성단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60
■ 그림 IV-10 ■ 여성단체라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	61
■ 그림 IV-11 ■ 여성단체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복수응답)	63
■ 그림 IV-12 ■ 단체의 주요활동 및 사업 분야(복수응답)	64
■ 그림 IV-13 ■ 단체 활동의 주요내용과 방식(복수응답)	64
■ 그림 IV-14 ■ 단체의 주요 대상(복수응답)	65
■ 그림 IV-15 ■ 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응답)	66
■ 그림 IV-16 ■ 여성 NGO 상근활동가에 대한 급여형태	68
■ 그림 IV-17 ■ 여성 NGO 상근활동가 급여 수준의 적절성	68
■ 그림 IV-18 ■ 여성 NGO 상근활동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	69
■ 그림 IV-19 ■ 여성 NGO 상근활동가 주당 평균 근무일과 하루 평균 근무시간	70
■ 그림 IV-20 ■ 여성 NGO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	72
■ 그림 IV-21 ■ 네트워크 필요성	74
■ 그림 IV-22 ■ 현재 네트워크 여부	74
■ 그림 IV-23 ■ 네트워크 필요 대상(복수응답)	75

■ 그림 IV-24 ■ 네트워크 단체와의 접촉빈도	78
■ 그림 IV-25 ■ 네트워크 협력 정도(복수응답)	79
■ 그림 IV-26 ■ 네트워크 성과(복수응답)	79
■ 그림 IV-27 ■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	80
■ 그림 IV-28 ■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81
■ 그림 IV-29 ■ 서울시 사업 또는 정책과정 참여 경험	82
■ 그림 IV-30 ■ 서울시 사업 또는 정책과정 참여 방식	83
■ 그림 IV-31 ■ 서울시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 : 점수별	87
■ 그림 IV-32 ■ 서울시와의 협력에 있어서 어려운 점	88
■ 그림 IV-33 ■ 민간단체 지원 사업 인지여부	90
■ 그림 IV-34 ■ 민간단체 지원 사업 참여경험	90
■ 그림 IV-35 ■ 서울시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지원규모	91
■ 그림 IV-36 ■ 서울시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지원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91
■ 그림 IV-37 ■ 여성 NGO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	93
■ 그림 IV-38 ■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간 거버넌스 구축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94
■ 그림 IV-39 ■ 여성 NGO 지속적 운영 및 활동 지원체계 구축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94
■ 그림 IV-40 ■ 다른 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96
■ 그림 IV-41 ■ 단체 홍보 지원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96
■ 그림 IV-42 ■ 활동 공간 지원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97
■ 그림 IV-43 ■ 여성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98
■ 그림 IV-44 ■ 신생단체에 가장 필요한 부분	101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난해 11월 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2014, 여성 NGO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토론회에는 서울시와 여성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여성 NGO 활동의 어려움과 개선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눔.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에 소재지를 둔 여성 NGO와 새로 생겨나는 풀뿌리 여성조직이 활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눔.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실제로 여성 NGO와 풀뿌리 여성조직의 현황과 실태가 어떠한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서울시 NPO 지원센터(2013)’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2)’가 문을 열었으며, 두 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와 풀뿌리 조직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플랫폼이 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이들 센터는 여성 NGO와 풀뿌리 여성조직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을까? 여성 NGO와 풀뿌리 여성조직은 이들 센터에게 어떤 지원을 받거나 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 이런 필요성과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고 예비인터뷰를 해본 결과, 서울시의 풀뿌리 여성조직을 포함한 여성 NGO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여성 NGO에 대한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함. 따라서 연구목적은 첫째, 서울시 여성 NGO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것, 둘째, 현황파악 및 실태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여성 NGO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는 서울시 여성 NGO의 현황과악, 실태 분석, 지원방안 등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 집단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함.
- 첫째, 서울시 여성 NGO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여성 NGO의 현황과 최근 10년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추이를 살펴봄. 여성가족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 NGO 중 서울에 소재지를 둔 여성 NGO와,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NGO 중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 NGO로 분류해 관리하는 여성 NGO를 살펴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 NGO가 아닌, 미등록 여성 NGO의 현황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2014)’,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201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풀뿌리 여성모임 지원사업 자료를 활용해 살펴봄.
- 둘째, 서울시 여성 NGO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조사내용은 해당 NGO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NGO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네트워크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서울시와의 거버넌스 구축이나 여성 NGO에 대한 지원정책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아보았음.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추출해 여성 NGO의 대표와 실무자 등 총 28명을 개인 혹은 그룹으로 묶어 FGI를 진행함.
- 셋째, 서울시 여성 NGO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찾아봄. 여성 NGO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 정책연구자,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NGO 및 NPO 지원센터 활동가, 여성 NGO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로부터 전문가 자문의견을 구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여성 NGO 지원방안을 탐색함.

3. 실태조사결과 및 시사점

- 서울시 여성 NGO에 대한 실태조사로 설문 및 FGI 조사를 통해 여성 NGO의 일반 현황,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 및 주요 역할과 기능, 활동가의 근무 환경, 네트워크, 서울시 사업 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현황,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측면에서 서울시 여성 NGO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음에서는 본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함.
- 첫째, 여성 NGO의 일반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단체의 활동범위, 설립 시기 등 단체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이 차이가 남을 확인함.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2000년대 이후에 신설된 단체의 경우, 상근활동가 수가 오래된 단체의 1/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상근활동가 수 뿐 아니라 자원활동가 수도 매우 적어서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매우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이러한 인력규모는 단체의 예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예산이 적을수록 상근 활동가와 자원 활동가 수는 적었으며, 반대로 일정한 활동비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비상근 활동가 수는 많게 나타남. 단체의 예산확보방법에 있어서도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2000년대 이후 신설된 단체의 경우 정부프로젝트 등 외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신생단체와 역사가 오래된 단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요구가 상이함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접근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둘째, 여성 NGO의 정체성 및 주요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여성 단체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경우가 19.3%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은 성 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 목적이 여성 대상 활동이나 여성 회원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중요하게 나타남. 여성단체의 정체성은 '여성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 여성 NGO들은 단체의 주요 역할 및 활동방식, 활동대상에 있어서 마을 및 지역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임파워먼트 향상,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복지·인권 증진 등을 위해 활동

하고 있음. 여성단체로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단체의 활동방향과 성과에 대해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남. 여성단체로서의 활동 방향 및 비전, 성과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셋째, 여성 NGO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결과, 활동가들의 근무환경이 모두 열악하지만 특히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설립연수가 짧을수록 근무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냄. 이는 신생단체일수록 활동가에게 규칙적인 활동비 지급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단체 예산규모가 클수록 상근활동가의 활동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임. 상근 활동가들에게 안정적인 활동비 지급이 어려울수록 일부 활동가에게 업무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단체 사업 발굴 및 확장, 단체 이슈 발굴 등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크게 나타남.
- 넷째, 여성 NGO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여성 NGO들은 여성단체간 네트워크와 정부를 비롯한 중간지원조직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여성 NGO의 의제에 대한 고민과 인적·물적 자원의 어려움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여성 NGO간 공동협력사업을 개발·구성하고, 활동가 모집·양성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회원모집 등의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요구됨.
- 다섯째, 서울시 사업 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여성 NGO들은 정책개발과 정책협의 단계에서 서울시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뿐 아니라 공식적이고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와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등 거버넌스 통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

가는 것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여성 NGO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축과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를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여성 NGO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해 및 지지를 높이고, 민주적 소통과 협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활동가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뿐 아니라 단체 홍보 및 공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책 마련 시 신생단체의 활동 공간 및 단체운영체계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4. 지원방향

- 여성 NGO의 속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방법 변화
 - 여성 NGO에 대한 지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함. 따라서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여성단체 중심의 지원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속성과 요구를 가진 여성 NGO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단체 등록 밖에 있는 단체와 조직들을 지원하는 일은 행정적으로 쉽지 않지만,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풀뿌리 여성단체 및 조직이 여성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 따라서 이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그동안 정부와 여성 NGO와의 협력·지원 관계는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임. 민주적 의사소통 및 협의·조정 창구 마련 등 여성 NGO와의 실질적인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풀뿌리 여성조직은 서울이 가진 사회적 자본

- 여성 NGO와 함께 풀뿌리 여성조직은 메트로폴리탄 어디에서도 쉽게 가지기 어려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서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이 근간이 되는 풀뿌리 모임, 조직, 활동 등이 두드러지게 자라고 퍼지고 있음. ‘서울은 어떻게 번영을 공유하고 지속시킬 것인가’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내려면, 서울이 가진 특별한 자본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생태와 환경을 살리는 활동 등 서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활동가와 지역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변화뿐 아니라 정책 등 공적 영역의 변화까지 이루어내고 있음. 이러한 지역 여성운동 및 활동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들의 ‘활동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

5. 정책분야 및 세부과제

- 서울시 여성 NGO의 변화를 반영하고, 풀뿌리 여성조직은 서울이 가진 사회적 자본이라는 방향 하에 정책분야 및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표 】 정책분야 및 세부과제

정책 분야	세부 과제
I.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제도 및 사업 개선	1-1.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 : 등록요건 완화 및 인건비 지원 고려
	1-2. 서울시 NPO 지원센터 : 젠더 민감성 제고 및 여성 NGO 지원 확대
	1-3. 서울시 사업 참여 단체·모임 현황파악 : 풀뿌리 여성조직 및 모임 발굴
	1-4. 실질적 젠더 거버넌스 구축
II. 서울시 여성 NGO의 성장 기반 구축	2-1. 서울시 여성 NGO 현장 연구 지원 사업(가칭)
	2-2. 풀뿌리 여성조직의 젠더이슈 확산
	2-3. 서울시 여성 NGO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정책 분야	세부 과제
III. 서울시 여성 NGO의 활동 기반 지원	3-1. 여성 NGO의 주요 자원 : 1. 활동가 재생산 지원
	3-2. 여성 NGO의 주요 자원 : 2. 공간공유 허브 구축
	3-3. 여성 NGO의 자생력 확보 : 단체 홍보 및 컨설팅 지원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범위와 주요개념
4. 연구 추진 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해 11월 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2014, 여성 NGO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¹⁾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서울시와 여성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여성 NGO 활동의 어려움과 개선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에 소재지를 둔 여성 NGO와 새로 생겨나는 풀뿌리 여성조직이 활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실제로 여성 NGO와 풀뿌리 여성조직의 현황과 실태가 어떠한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²⁾

‘서울시 NPO 지원센터(2013)’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2)’가 문을 열었다. 두 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와 풀뿌리 조직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플랫폼이 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여성 NGO와 풀뿌리 여성조직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을까? 여성 NGO와 풀뿌리 여성조직은 이들 센터에게 어떤 지원을 받거나 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
- 1) 정책이란, 시민 의견을 듣고(聽) 정책에 반영한다(策)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서울시는 2011년 ‘희망 온돌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시작으로 일자리, 노숙인, 경제, 관광, 택시 등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가지고 총 82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중 여성가족분야의 정책토론회는 9회 개최되었다.
 - 2) 2014년 9월 서울시가 발간한 「2014 정책토론회 백서」와 “2014, 여성 NGO 활성화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회의록(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에 시민과 현장 활동가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이런 필요성과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고 예비인터뷰를 해본 결과, 서울시의 풀뿌리 여성조직을 포함한 여성 NGO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여성 NGO에 대한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첫째, 서울시 여성 NGO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것, 둘째, 현황파악 및 실태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여성 NGO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서울시 여성 NGO의 현황파악, 실태 분석, 지원방안 등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 집단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했다.

첫째, 서울시 여성 NGO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여성 NGO의 현황과 최근 10년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추이를 살펴보았다. 여성가족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 NGO 중 서울에 소재지를 둔 여성 NGO와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NGO 중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 NGO로 분류해 관리하는 여성 NGO를 살펴보았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 NGO가 아닌, 미등록 여성 NGO의 현황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2014)’,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201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풀뿌리 여성모임 지원사업 자료를 활용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여성 NGO 등록 현황과 추이, 풀뿌리 여성조직의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등록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한 여성 NGO 지원정책 추진현황과 그 외 한국여성재단이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 여성 NGO 지원을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성 NGO 지원 현황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시 여성 NGO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내용은 해당 NGO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

며 여성 NGO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네트워크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서울시와의 거버넌스 구축이나 여성 NGO에 대한 지원정책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알아보았다. 여성 NGO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향후 집중되어야 할 지원분야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추출해 여성 NGO의 대표와 실무자 등 총 28명을 개인 혹은 그룹으로 묶어 FGI를 진행했다. FGI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 NGO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연구과정에는 물론 특히 정책제언 도출에서 반영하고자 했다.

셋째, 서울시 여성 NGO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찾아보았다. 여성 NGO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 정책연구자,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NGO 및 NPO 지원센터 활동가, 여성 NGO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로부터 전문가 자문의견을 구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여성 NGO 지원방안을 탐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시 여성 NGO 지원과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 서울시에 제안할 지원책, 여성 NGO를 지원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제안할 지원방안, 여성 NGO 조직간 상호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3. 연구범위와 주요개념

이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서울시 여성 NGO와 젠더 거버넌스의 의미와 연구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여성 NGO

서울시 여성 NGO를 정의하고 연구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먼저 NGO와 여성 NGO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29선언 이후에 이전의 민중운동이나 재야운동과 달리 여성, 환경,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활동단체를 NGO로 지칭하면서부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NGO는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운동단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운동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국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감시하고,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하며, 국가가 모자라는 부분을 혁신하고,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할 여력이 없는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조효제, 2000)는 측면에서 비정부적(Non-Governmental) 활동을 광범하게 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GO를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비영리를 전제한 비정부조직, 즉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면 새마을부녀회, 주부클럽과 같은 조직은 비영리적이고, 비정부적이며, 비당파적이고, 공익적이며, 자발적이고, 자율적 성격을 가진 NGO이므로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운동단체가 아닐지라도 이들 단체를 NGO에서 배제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가 NGO란 무엇이며 여성 NGO 내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주된 연구목적이 아니므로 NGO를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NGO를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면 여성 NGO는 어떤 의미로 사용할 것인가? 먼저 다수의 선행연구를 보면 여성 NGO가 아니라 여성단체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조형(1984)은 남녀평등사회구현이라는 여성주의적 이념을 지닌 조직체로 정의한다. 김정한 외(1985)의 연구와 정현백 외(1998)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공통의 관심사의 추구를 위해 여성들이 스스로 모인 자발적인 집단으로 정의한다. 홍미희 외(2007)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여성인 단체로, 안태윤(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활동과 조직의 주체가 되어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단체로 정의한다. 한정자 외(2004)의 연구에서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비정부·비정치적·비종교적·비영리를 추구하는 여성으로 조직된 단체로 중앙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 정의한다. 여성 NGO를 정의한 선행연구는 첫째, 여성주의 이념에 초점을 두는 정의, 둘째, 여성문제 해결이라는 조직의 목적에 초점을 두는 정의, 셋째, 성별이 여성인 단체 구성원을 강조하는 논의, 넷째, 정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는 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단체와 관련된 정의 혹은 범위를 명시한 법률이나 서울시 자치법규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에서는 여성단체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에서는 “시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정의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명시된 것으로 판단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풀뿌리 여성조직”을 여성 NGO로 정하고자 한다. 어떤 풀뿌리 여성조직은 활동의 목적이나 정체성을 여성주의에 두고 있지만, 또 다른 풀뿌리 여성조직은 회원 다수가 여성이고 여성주의 프로그램, 모임, 활동 등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여성조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목적이나 사업내용 등에서 여성주의의 싹을 품고 있다면 앞으로 여성 NGO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조직까지 풀뿌리 여성조직에 포함했다. 특히 본 연구가 여성 NGO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내용과 활동방식의 풀뿌리 여성조직을 여성 NGO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³⁾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특별시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서울에 소재한 여성 NGO라고 할 지라도 활동범위가 서울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서울에 소재한 여성 NGO의 주된 활동 파트너가 서울시나 자치구가 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일수도 있으며, 지역에 수많은 지부를 둔 중앙 여성 NGO라면 서울시를 넘어 타 시도까지 활동범위

3) 이후 본문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 NGO와 미등록 풀뿌리 여성조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풀뿌리 여성조직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했음을 미리 밝힌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여성 NGO를 법적 지위로 구분 할 때 여성단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로 구분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임의단체로서 미등록 풀뿌리 여성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여성 단체의 범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가 확장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서울에 소재한 여성 NGO라고 해도 서울시보다는 타 시도에 있는 여성 NGO 지부와는 사업추진에 더 비중을 두고 해당 NGO 본부 역할에 충실한 여성 NGO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에 소재한 여성 NGO 중 전국 단위의 메이저 여성 NGO의 경우,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둘 중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에 좀 더 적극적인 곳으로 협력관계의 축을 옮기는 유동적 경향⁴⁾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배타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2) 젠더 거버넌스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양식으로 주목받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기존의 정부 중심의 운영방식이 아닌 정부, 시장, 시민사회 혹은 조직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운영방식을 의미한다(Powell, 1990). NGO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우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NGO는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희소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목표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Kearns, 2000). NGO의 경우 그 특성상 자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불충분한 자원 문제(박애적 불충분성), 소수 집단에 의한 NGO 내부의 의사결정 문제(박애적 온정주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박애적 아마추어리즘) 등으로 NGO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Salamon, 1987).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NGO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완화 혹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협력을 통해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외부 전문성 활용함으로써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 증진이나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NGO의 관점 이외에 정부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대상으로서 NGO를 지원하는 근거를 살펴보면⁵⁾, NGO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조직으로서 다양한 장점

4) 이와 관련해 서두원(2012)과 강경란(2013)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관료와 여성단체간의 파트너십이 붕괴되고, 여성운동이 그동안 ‘참여의 정치’ 전략을 취하며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수많은 젠더 이슈들을 제도화했던 이전의 ‘갈등적 협력’관계를 거부했다고 논의한 바 있다.

5)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NGO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이론, 자원실패이론,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이론 등의 측면에서 논의

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NGO는 정부에 비해 자율, 참여, 연대, 유연성, 자원활동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 NGO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NGO는 정부와 협력관계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 서비스 생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NGO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NGO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자기역할을 하게 된다(박상필, 2004).

이처럼 거버넌스는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기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다스림(governing)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이며, 이에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탐색이 가능하다(이명석, 2002).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갖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를 의미하고, 환경 거버넌스는 환경 문제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를 의미하며, 젠더 거버넌스는 젠더문제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젠더 거버넌스는 정부, 여성 NGO 및 젠더 관련 다양한 행위자들의 평등한 참여와 이들 참여자간의 젠더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기제로 정의될 수 있다.

여성정책 거버넌스는 젠더이슈를 행정기구 내에 제도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의제에 반영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즉 젠더 세력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마경희, 2010). 그동안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여성단체나 전문가와 같은 민간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평가된다(원숙연·박진경, 2006).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시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각종 위원회 활동이나 워크숍, 민간협력사업, TF활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상이한 계층과 연령, 집단의 여성 참여를 유도해 성주류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거버넌스 형성과 실천과정이 정부주도로 이어짐에 따라 참여자들의 역할이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이고 참여정도가 매우 낮은 것(정영애, 2012)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따라서 젠더 거버넌스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거버넌스 구성 및 실행에서

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여성 NGO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당위성을 여성 NGO와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젠더 거버넌스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일회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여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젠더 거버넌스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행위자들이 추진되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추진단계, 평가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젠더에 대한 감수성과 의지를 가진 외부전문가나 지역 여성 NGO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성공적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 NGO에 대한 지원, 풍부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여성주의적 관료 육성, 그리고 젠더 세력화를 뒷받침해주는 폭넓은 지지집단 간의 연대와 협력의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4.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I-1 연구 추진 체계



II

선행연구 검토

1. 여성 NGO 활동
2. 풀뿌리 여성조직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선행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해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 NGO의 성장 과정을 생성기(1980년~1986년), 확대기(1987년~2000년), 재탐색기(2000년 이후~현재까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여성 NGO가 결성되기 시작한 생성기와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특징적인 활동을 펼친 확대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먼저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젠더 제도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여성 NGO 내부 상이한 의견들, 그리고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한 지역 기반의 풀뿌리 여성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여성 NGO 활동

1) 생성기 : 1980년~198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창설 이전까지

1980년이 시작되면서 한국 여성 NGO는 여성신학자협의회(1980)를 시작으로 여성평우회(1983), 기독교여민회(1986) 등 여성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와 새로운 대안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또 하나의 문화(1984) 등이 속속 등장했다. 가정 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사업을 위한 여성의 전화(1983)와 1970년대 민주노조에서 활동하던 여성노동자들과 여성평우회에서 활동하던 지식인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여성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여성노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여성노동자회(1987)를 설립했다(안태운 외, 2012). 이 시기는 권위적이고 독점적인 국가

권력에 맞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들이 온건하고 개혁적이며 여론을 동원해 다수의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NGO 활동을 태동시킨 단계였다.

2) 확대기 : 1987년~2000년

확대기는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창설된 이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여성 NGO들이 정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여성부 출범을 앞두고 젠더 제도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2000년까지의 시기이다. 1987년 창설된 여연은 여성노동자문제, 부천서 성고문사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여성대중의 생존권 문제 등 사안별로 연대활동을 해온 21개의 여성단체들이 상시적인 연대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해 출범했다(안태운 외, 2012). 이로써 1959년 창설되어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활동을 해온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와 더불어 여연은 여성단체의 양대 진영을 이루게 되었다. 여협 소속 단체들이 현모양처관념을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이나 정부시책을 지원하는 보수적인 활동을 전개해온데 반해, 여연은 사회의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주의 정책의제들을 독자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홍미희 외 2007).

1987년 6·29 선언 이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여성 NGO는 양적인 증가와 함께 활동 분야도 다양하게 넓혀나갔다. 이 시기에 여연은 한편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1988)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84년 시작된 가족법 개정안을 ‘가족법개정을 위한 위원회’와 연대활동을 통해 1998년에는 가족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효재, 1996).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미스코리아반대운동, 사이버상의 성폭력대처운동, 부모성함계쓰기운동(1997), 호주제폐지운동(1998) 등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라 유권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캠페인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여성의원 할당제를 이슈화하였다(장미경, 2006).⁶⁾

6) 1988년에 창립한 여성신문사는 이 시기의 여성 관련 이슈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로써 여성 NGO의 활동소식과 이슈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NGO는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소속 회원과 이념 지향을 다변화했다.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여성 NGO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의견들은 1990년대 들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서두원, 201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정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의 여성 NGO 지도자가 정부와 국회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여성 NGO간의 연대강화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지형 속에서 여성 NGO들은 한편에서는 법과 정책을 바꾸는 젠더 제도화를 더욱 중시하는 쪽으로 활동을 강화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젠더 제도화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생겨나서 갈등과 재탐색의 시기로 넘어가게 된다. 더욱이 2000년 4월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다수의 여성 NGO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하게 되고, 여성 NGO가 자력으로 운영해오던 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쉼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점차 확대되면서 제도화의 성과와 이로 인한 여성 NGO의 활력 감소에 대한 논쟁은 본격화된다(서미라, 2002; 윤정숙, 2004; 오장미경, 2005; 허성우, 2006; 서두원, 2012).

2. 풀뿌리 여성조직

2001년에 여성가족부가 정부조직 내에 신설되면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각종 제도 정비는 더욱 본격화 된다. 젠더 제도화의 큰 성과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NGO들은 중앙정부를 대신해 여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대항 헤게모니 개발을 소홀히 하면서 여성의 일상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고 경험되는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구별하고 해석하고 이름붙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박인혜, 2009; 서두원, 2012)는 비판 역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NGO에서 일하는 많은 상근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여성운동가인지 정부의 감독하에 정책을 실행하는 하급 공무원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김은경, 2005). 젊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기존의 여성 NGO 지도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여성 NGO 내부의 차이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제기하

기도 했다(김기선미, 2006; 조이여울, 2006). 여성 NGO 지도자와 회원들은 상담활동의 제도화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운동의 활력이 약화되었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며 조직 기반을 확장하려는 노력 대신 기존 상태에 안주하려 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여성의 전화, 2003). 여성 NGO 내부의 갈등은 비판과 성찰로 이어져 지역 사회에 기반한 여성 NGO 활동에서 재활력화의 에너지를 얻고 운동의 방향성을 새롭게 탐색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여성 NGO들은 ‘지역여성’과 ‘풀뿌리 조직’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모토처럼 여성 NGO 활동을 정비해나갔다. 특히 여연은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조직 강화, 본부와 지부간 그리고 지부와 지부간의 수평적 연대를 지향하며 지역 기반 풀뿌리 여성조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난 풀뿌리 여성조직은 여성주의와 조직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육아, 학부모모임을 조직해나갔다.

여성 NGO에 근간을 둔 풀뿌리 여성조직과는 달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더 붙어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며 그 동네에 사는 여성들이 하나 둘씩 모인 자생적인 풀뿌리 여성조직들이 전국 곳곳에서 생겨났다.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이웃들과 만나고 생활하는 마을의 주인들이다. 이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지는 못해도 자녀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젊은 직장맘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자신이 곧 다시 일하러 나가면 겪을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육아 커뮤니티가 점차 늘어났다.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공동육아 커뮤니티는 부모커뮤니티로 이어지기도 했다.

풀뿌리 여성조직의 생성은 풀뿌리의 변식 속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토끼풀형과 민들레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끼풀과 민들레는 누구나 아는 풀이고 변식 속성이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토끼풀은 뿌리간의 연결망을 촘촘히 만들면서 옆에서 옆으로 번식한다. 반면 민들레는 독자적으로 깊게 뿌리내리고 홀씨를 만들어 번식한다. 변식 속성이 전혀 다른 토끼풀형과 민들레형처럼 풀처럼 풀뿌리 여성조직도 생겨난 배경과 성장과정이 다르다면 앞으로 풀뿌리 여성조직에 대한 지원방식도 달라야 할 것이다.

풀뿌리 여성조직의 활동 측면에서도 목적을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을 중시하는 토끼풀형인지, 공간을 매개해 한 지역에 깊게 뿌리내리는 민들레형인지 구분한다면 기존의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나 ‘작은 풀뿌리 지원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어떤 유형의 풀뿌리 여성조직에 집중되었는지, 향후 어떤 지원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풀뿌리 여성조직의 유형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이후 풀뿌리 여성조직의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징을 포착해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Ⅲ

서울시 여성 NGO 현황 및 지원정책

1. 여성 NGO 현황
2. 여성 NGO 지원정책 및 사업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여성 NGO 현황 및 지원정책

1. 여성 NGO 현황

1)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 등록 NGO 현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6개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의 수는 2000년 2,524개에서 2013년 11,579개로 늘어났다. 2010년 이후로는 등록단체수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6%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I-1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및 증감율

(단위 : 개,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등록수	2,524	3,451	3,972	4,588	5,232	5,953	6,699	7,241	8,175	9,003	9,603	10,209	10,889	11,579
전년대비 증감단체수	2,524	927	521	616	644	721	746	542	934	828	600	606	680	690
증감율	-	36.7	15.1	15.5	14.0	13.8	12.5	8.1	12.9	10.1	6.7	6.3	6.7	6.3

주: 등록수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포함임.

자료: 행정자치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6개 시도의 등록단체수를 구별해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수는 2000년 292개에서 2013년 1,413개로 늘어나 2000년 대비 4.8배 증

가했다. 시·도 등록단체수는 2000년 2,232개에서 2013년 10,166개로 나타나 2000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수는 2000년 223개에서 2013년 1,413개로 나타나 2000년 대비 6.3배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시도보다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단체 증가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III-2 】 등록구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단위 : 개)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524	3,451	3,972	4,588	5,232	5,953	6,699	7,241	8,175	9,003	9,603	10,209	10,889	11,579
중앙 행정기관	292	372	428	480	555	663	743	790	845	981	1,092	1,189	1,319	1,413
시·도	2,232	3,079	3,544	4,108	4,677	5,290	5,956	6,451	7,330	8,022	8,511	9,020	9,570	10,166
서울시	223	357	422	511	595	702	790	910	965	1,052	1,186	1,278	1,404	1,413

주: 7개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는 계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행정자치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2) 여성가족부 등록 여성 NGO 현황

여성가족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 NGO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94개로 이중 사단법인이 60개 비법인이 34개이다.

【 표 III-3 】 여성가족부 등록 여성 NGO

(단위 : 개)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단	-	-	-	-	1	13	13	14	14	45	52	55	56	60
비법인	-	-	-	-	10	3	3	3	3	12	12	18	31	34
계	-	-	-	-	11	16	16	17	17	57	64	73	87	94

주: 2004, 2005, 2008, 2009년도 여성부, 2006, 2007, 2010~2013년도 여성가족부임.

자료: 각 년도 안전행정통계연보 재구성

3) 서울시 여성 NGO 현황

서울시에 등록된 여성 NGO는 2014년 6월 현재 모두 108개이다. 2000년에 등록된 여성 NGO는 16곳으로 연도별 등록수로는 가장 많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등록 NGO를 설립목적 및 활동유형별로 여성가족, 출산육아, 다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여성가족분야 NGO는 모두 78개이고, 출산육아분야 NGO는 12개, 다문화분야 NGO는 18개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전년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05년과 2013년에 각 14개가 등록한 것이다. 2005년에는 전년에 비해 등록단체수가 두 배로 늘었다. 2005년에 등록한 단체명을 보면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한국장애아 통합실천연구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등이다. 이는 2004년 3월에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⁷⁾과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에 기울인 관심과 의지⁸⁾ 등이 관련 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에 다문화와 관련된 단체가 14개 늘어난 것은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활동조직 증가가 여성 NGO 등록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⁹⁾

표 III-4 서울시 등록 여성 NGO

(단위 : 개)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계	16	7	4	7	7	14	5	6	4	1	6	6	5	14	5	108
여성가족	15	4	4	7	7	11	4	5	3	0	3	5	4	4	1	78
출산육아	1	3	0	0	0	3	1	1	0	1	0	0	1	0	1	12
다문화	0	0	0	0	0	0	0	0	1	0	3	1	0	10	3	18

자료: 서울특별시 NGO 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자료 재구성

- 7) 2004년 3월에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8)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실무자를 위한 인권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의 부록에는 국내 시민단체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록했는데 그 중 한 분야로 성적소수자단체를 분류하고 5개 단체를 수록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했다.
- 9)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등록 단체를 모두 여성 NGO로 분류할 때, 본 연구의 여성 NGO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을 배제하고 여성가족정책실 등록 단체를 모두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 표 III-5 】 서울시 여성분야 NPO 단체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체	여성분야	비율
	1,752	66	3.8
여성분야 단체명 (6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한국가족문화원 ·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 금천학부모모임 · 교육복지연구원 · W-ing ·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 내일을여는 멋진여성 · 서울여성회 · 서울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새세상을여는 천주교 · 여성자원금고 · 아나기 코리아비엔비 · 세계평화여성연합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전국여성연대 ·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 여성환경연대 ·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문예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청년여성문화원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금천생태포럼 ·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 살기좋은우리구만들기여성회 · 봄빛여성재단 ·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 서울시협회 · 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여성공동체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시각장애인여성회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부인회 · 장애여성네트워크 · 은행정책파당 · 희망나눔연합 · 한국여성재단 ·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문예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문직여성 한국연맹 ·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구로여성회 · 결혼이민자 여성평등찾기 ·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서울소리회) · 기독교여성상담소 · 서울어머니학교 · 서울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YMCA · 여성정체세력민주연대 · 언니네트워크 · 수수팥떡아사모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 좋은세상만드는사람들 · 자립지지공동체 · 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 ·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여성민우회

자료: 서울시NPO지원센터(<http://www.seoulncocenter.kr>)

한편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NPO 1,752개 중 여성 NPO는 66개(3.8%)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NGO 대비 여성 NGO 비율 7.3%의 절반 수준이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108곳보다 42곳이 적다. 그 이유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가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NGO의 목록에서 단체명 및 설립 목적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여성 NGO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시 NPO 지원센터가 기등록 여성 NGO 및 등록 준비 중인 여성 NGO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해 보인다.

4) 풀뿌리 여성조직 현황

서울시에 있는 풀뿌리 여성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2014년에 발간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를 살펴보았다. 백서는 마을공동체를 돌봄, 문화, 경제, 주거 등 4개 공동체로 구분하는데 이 중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공동체를 제외하고, 풀뿌리 여성조직이 활동할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만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6】 서울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현황(2013년)

(단위 : 개)

자치구	구별 합계	부모 커뮤니티	공동 육아	다문화 마을	청소년 휴카페	마을 미디어	마을 예술 창작소	마을 북카페	한옥 마을	아파트 공동체	안전 마을	에너지 자립 마을
강남구	8	4								4		
강동구	33	13	1		1	2		2		7	5	2
강북구	37	15	2		2	2	3	3		5	5	
강서구	21	6	1			1		4		7	2	
관악구	32	7	1	1	1	4	2	2		6	8	
광진구	20	11	1				1	3		3		1
구로구	42	12			2	3	2	4		15	3	1
금천구	29	9	3	2	1	2	1	1		7	2	1
노원구	38	13	1	1	2	1		1		18	1	
도봉구	30	5			1	3	2	5		6	6	2
동대문구	15	5	1		1	1				3	3	1
동작구	28	10	1		1	2	1			10	2	1
마포구	40	22	2		2	5	5	2		1	1	
서대문구	22	9		1		3	1	3		3	2	
서초구	15	3	2		1	1	1	2		4	1	
성동구	15	6						1		8		
성북구	50	15	4		1	4	5	3	1	11	5	1
송파구	35	4	1		3	1	4			22		
양천구	17	3			1	2	1	1		8	1	
영등포구	25	4	1	1	1	3	2	2		8	3	
용산구	22	5	1	1	3	2	2	1		7		
은평구	37	11	3	1	3	6	2	2		5	3	1
종로구	22	6			1	2	2	2	6	2	1	
중구	7	3					1	1		1	1	
중랑구	18	10			2	2	1	1		2		
합계	658	211	26	8	30	52	39	46	7	173	55	11

주: 2013년 기준, 통계표를 재구성

자료: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 “서울·삶·사람”

위의 표를 보면 자치구별 마을공동체는 모두 658개이고 이중 여성이 회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만 합해도 그 숫자는 237개이며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이 자료는 마을공동체에 풀뿌리 여성조직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풀뿌리 조직 중 어떤 것이 여성조직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2012년에 발간된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를 통해 서울시 풀뿌리 여성조직을 추출해보았다¹⁰⁾. 생태지도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한 풀뿌리 단체는 모두 122개이다. 설문조사지에 응답자가 중복체크할 수 있도록 구분한 활동분야는 ‘주민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청년단체, 정책단체, 이주민단체, 인권단체, 기타단체’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분야를 ‘여성단체’로 체크한 단체는 동그라미(○), ‘여성단체’로 체크하지 않았으나 서울시나 자치구로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조직 내에 여성주의 모임이 있거나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에는 세모(△), 그 외의 단체는 엑스(×)로 구분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풀뿌리 단체들을 구분한 결과, 풀뿌리 여성조직은 122개 중 17개(13.9%)이고, 여성단체로 체크하지 않았으나 여성발전기금 참여 경험 또는 조직 내 여성주의 모임, 여성회원 대상 특화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14개(11.4%)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풀뿌리 여성조직 17개의 분포를 보면 강북 1개, 강서 1개, 구로 1개, 천 2개, 도봉 2개, 동작 1개, 서대문 2개, 양천 1개, 영등포 1개, 은평 1개, 중랑 1개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풀뿌리 여성조직의 싹을 가지고 있는 14개의 분포를 보면 강동 1개, 관악 2개, 구로 1개, 금천 2개, 노원 1개, 도봉 1개, 동대문 1개, 서대문 1개, 은평 1개, 종로 1개, 중구 1개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풀뿌리단체 중 회원의 다수가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작은 도서관, 장애아동 돌봄, 비문해프로그램¹¹⁾ 등을 운영하고 있

10)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는 서울의 구(區)와 동(洞)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명, 설립년도, 회원수, 법인형태, 단체성격, 참여하는 네트워크, 대표자, 임원, 상근활동가, 간행물과 주요 출판물, 부설기관, 설립목적, 주요사업, 연혁 등을 조사대상 단체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1) 비문해는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비문해인을 위한 한글교실에 참여하는 교육

는 곳을 풀뿌리 여성조직으로 분류한다면 풀뿌리 여성조직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를 통해 전체 풀뿌리 조직 중 스스로의 정체성을 ‘여성단체’에 두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에 수록된 조사결과는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아쉬운 점은 회원수, 대표자 및 상근활동가수를 기입할 때 성별로 나누어서 기입하게 했더라면 풀뿌리 조직의 회원별, 대표자별, 상근활동가별 성별 구성비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큰 이유는 이 책자에는 풀뿌리 단체별로 활동사진이 1~5개정도 수록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다수의 활동가나 회원이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 만났던 ‘서울지역 풀뿌리여성주의 네트워크’¹²⁾회원은 풀뿌리 여성조직의 경우 회원의 다수는 여성이지만 대표는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4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작은풀뿌리 발굴 및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한 풀뿌리 활동가 워크숍(2014.10.28) 자료집에서도 2007년~2009년 사이에 훈련을 받고 배출된 풀뿌리 여성조직가들이 전국적으로 100명을 넘었다고 한다. 풀뿌리 조직활동의 근간인 여성들을 위한 여성주의 리더십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들이 활동가 혹은 회원으로 풀뿌리 활동을 하거나 소모임을 지속하거나 여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여성단체’에 두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풀뿌리 단체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흔하고 일상적이어서 굳이 단체의 성격을 여성단체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일까? 여성단체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작용한 것일까? 이 부분은 앞으로 풀뿌리 여성조직을 연구할 때 반드시 짚어볼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와 유사한 작업이 진행된다면 사람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성별분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젠더에 민감한 연구자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여성단체’로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생은 여성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12) ‘서울지역 풀뿌리여성주의 네트워크’는 ‘서울도 지역이다’라는 모토 하에 네트워크 방식으로 모이고 활동하기 위해 2013년 출범했다.

표 III-7 서울시 자치구별 풀뿌리 여성조직 분포

자치구	연번	단체명	정체성	자치구	연번	단체명	정체성
강남	1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	노원	44	노원나눔연대	×
	2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		45	노원청년회	×
강동	3	강동시민연대	×		46	마들주민회	△
	4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	47	북부환경정의중앙천사람들	×	
	5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동지회	×	48	도봉사람들	×	
	6	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시민회	×	49	도봉시민회	△	
강북	7	강북나눔연대	×	50	산돌여성모임	○	
	8	녹색마을사람들	○	51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9	삼각산재미난마을	×	52	동대문나눔연대	×	
	10	생명평화연대	×	53	열린사회시민연합 동대문시민회	×	
	11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	54	푸른시민연대	△	
	12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	55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강서	13	강서나눔연대	×	56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	
	14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	57	우리동네나무그늘	△	
	15	열린사회시민연합 강서양천시민회	×	58	마포희망나눔	×	
	16	교육자치시민회	×	59	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FM	×	
	17	서울강서양천여성의 전화	○	60	마포 민중의 집	×	
관악	18	건강한도립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	61	나라사랑청년회	×	
	19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	62	너머서	○	
	20	관악사회복지	×	63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	○	
	21	관악주민연대	×	64	서대문희망네트워크	×	
	22	관악청년회	×	65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서부지회	△	
	23	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FM	△	66	함께기는서대문장애인 학부모회	×	
	24	난곡사랑의 집	△	67	성동교육희망찾기	×	
	25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	68	성동주민회	×	
	26	도시생태공동체 '서울살이'	×	69	성동희망나눔	×	
	27	봉천동나눔의 집	×	70	즐거운청년커뮤니티 e-클럽	×	
광진	28	푸른공동체 살터	×	71	나눔과 미래	×	
	29	광진시민연대	×	72	성북나눔연대	×	
	30	광진주민연대	×	73	시민모임 즐거움교육상상	×	
	31	새날을여는지역사회교육센터	×	74	송파시민연대	×	
구로	32	구로건강복지센터	△	75	즐거움 가	×	
	33	구로민중의 집	×	76	강서양천교육희망네트워크	×	
	34	구로시민센터	×	77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35	구로여성회	○	78	은행정책마당	○	
	36	열린시민시민연합 구로시민회	×	79	문래도시텃밭	×	
	37	금천교육네트워크	×	80	보노보C	×	
금천	38	금천구도시농업네트워크	×	81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	
	39	금천생태포럼	○	82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	
	40	금천학부모모임	○	83	정다방프로젝트	×	
	41	살기좋은우리구만들기여성회	×	84	해움터	○	
	42	숲지기강지기	△	85	동자동사랑방	×	
43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	86	용산연대	×		

자치구	연번	단체명	정체성	자치구	연번	단체명	정체성	
은평	87	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	○	의계 단체	98	건교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88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		99	서울시민네트워크	×	
	89	은평시민넷	×		100	서울시민연대	×	
	90	은평학부모네트워크	△		101	서울폴시넷	×	
종로	91	마을공동체 품애	△		102	서울KYC	×	
	92	서촌주거공간연구회	×		103	문화연대	×	
	93	종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		104	열린사회시민연합	×	
중구	94	유어웨이 YOURWAY	△		105	희망행정네트워크	×	
중랑	95	중랑민중의 집	×		복지 단체	106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96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			107	서울경기지부	×
	97	중랑희망연대	×			108	주거복지연대	×
환경 단체	98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109	홀리스행동	×
	111	노을공원시민모임	×			110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112	생태보전시민모임	×			111	노을공원시민모임	×
	113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		112	생태보전시민모임	×	
	114	서울환경운동연합	×	113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		
	115	우이령사람들	×	114	서울환경운동연합	×		
여성 단체	116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115	우이령사람들	×		
	117	서울여성회	○	116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118	서울여성노동자회	○	117	서울여성회	○		
교육 단체	119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118	서울여성노동자회	○		
	120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119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121	어린이책시민연대	×	120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122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	121	어린이책시민연대	×		

2. 여성 NGO 지원정책 및 사업

1) 여성가족부의 여성 NGO 지원정책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¹³⁾와 동법 시행령 제34조¹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13)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에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14)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기금의 용도)는 법 제30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여성인력의 양성,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

가 여성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를 통한 여성 NGO 지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여성 NGO 지원정책의 현황을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성가족부는 199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1998년 7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매년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해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30조에 근거해 추진되는 여성가족부와 여성 NGO간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이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여성 NGO 지원사업이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추진한 여성 NGO 지원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기금사업비 총액과 사업분야는 확인 가능하지만 기금사업비 중 얼마를 여성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했는지, 지원한 단체가 몇 곳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다. 여성백서 등의 자료를 통해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한 NGO 지원예산과 지원단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한 해에 여성 NGO의 사업을 지원한 건수는 대략 100개~149건이다. 사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2003년의 4백 60만원을 제외하고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¹⁵⁾.

치의 시행,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5) 1개 단체가 1개 사업 이상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지원건수 및 사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곧 단체지원 건수와 단체당 평균 지원금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표 III-8 】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금 단체지원사업(2003~2013)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금	558	2,000	1,970	2,070	2,070	1,863	1,700	3,050	2,204	2,641	2,591
지원단체	121	119	126	123	126	122	100	149	109	135	122
평균지원금	4.6	16.8	15.6	16.8	16.4	15.3	17.0	20.5	20.2	19.6	21.2

자료: 여성백서(2003, 2004), 제250회 국회 국정감사 여성위원회 여성가족부 업무현황(2004.10.16), 여성가족부(2013.6)자료를 재구성

주1) 2003년 여성 NGO 지원금은 기금사업비 중 '권익증진 및 차별개선' 항목의 사업비임.

주2) 2004년 여성 NGO 지원금은 여성백서(2004)와 국회 국정감사 자료 중 국정감사 자료를 활용함.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지원을 받았던 여성 NGO의 소재지를 서울, 서울 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04년에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한 전국 여성 NGO 139곳 중 서울 소재 여성 NGO는 53곳(38.1%), 서울 외 소재 여성 NGO는 86곳(62.9%)로 나타났다¹⁶⁾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지원을 받았던 여성 NGO중 서울 소재 여성 NGO는 대략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9 】 여성발전기금 지원 단체의 소재지별 분포(2009-2013)

(단위: 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소재	50(50.0)	62(41.6)	55(50.0)	66(49.0)	58(47.5)
서울 외 소재	50(50.0)	87(58.4)	54(50.0)	69(51.0)	64(52.5)
계	100(100.0)	149(100.0)	109(100.0)	135(100.0)	122(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3:9)

16)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지원 현황>을 정리한 표에서는 200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은 NGO 숫자(119곳)와 지원금액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국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이용했다. 반면 2004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명, 사업명,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04 여성백서>인데 이 백서에 따르면 2004년에 기금사업을 지원받은 여성 NGO는 139개로 정리되어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된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각종 자료를 검색한 결과 여성정책 자료의 지속관리가 중요함을 새삼 알 수 있었다. 불과 10여 년 전의 여성정책 자료조차 숫자가 불일치하거나 수록된 자료가 들쭉날쭉하므로 소관 정책자료를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금을 지원받았던 여성 NGO 소재지의 경우에도 2004년 자료는 소재지가 있으나 그 후로는 인터넷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다시 기금을 지원받은 NGO의 소재지가 기재되었다가 2014년부터는 기금지원 선정단체 공지에서 소재지가 기재되지 않고 있다.

2) 서울시의 여성 NGO 지원정책

서울시의 여성 NGO 지원현황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지원¹⁷⁾, 서울시의 전체 공익활동지원, 서울 지역 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커뮤니티 지원¹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 NGO 지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1998년부터 여성 NGO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⁹⁾.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가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한 여성 NGO 누계는 1,013곳이고, 지원금 누계는 137억 1900만원이다. 2014년 6월 현재 서울시가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여성 NGO는 74곳이며, 지원금은 9억 9,600만원이다.

【 표 III-10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 NGO 지원현황(1998~2014)

(단위 : 백만원, 개)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원금	636	507	644	613	575	900	753	690	747
지원단체	69	59	34	32	50	58	58	55	65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지원금	750	773	916	869	757	1,779	814	996	13,719
지원단체	60	56	55	60	50	109	69	74	1,013

자료: 서울시 연도별 서울여성백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3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17)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로 정해진 바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18) 부모커뮤니티란 부모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자녀와 관련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의미(서수경 외, 2012)하는데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와 그 자녀, 지역주민 3인 이상이면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지원이 여성 활동 지원이나 여성 풀뿌리 지원에 목적이 둔 것이 아니지만 이를 통한 여성활동 지원, 여성 소모임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지원 사업 현황에 포함했다.

19) 「2003 서울여성백서」 등 연도별 서울여성백서에는 서울시가 1996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1998년부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시작한 것과 이후 그 동안 조성한 여성발전기금 현황과 지원한 단체 및 지원금액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2)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한 여성 NGO 지원

서울시는 공익활동지원사업²⁰으로 일반제안(NPO 역량강화 사업,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사업,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시 지정 사업 2년간 수행)으로 구분해 NGO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NGO 394곳 중 여성 NGO는 17곳(4.3%)이며 3년간 총지원금 58억 3,682만원 중 여성 NGO 지원금은 총 2억 6,100만원(4.5%)이다.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한 여성 NGO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NGO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지만 여성주의 관점이거나 젠더이슈 관련 특화 사업분야가 없으며, 민간단체가 아닌 지역풀뿌리모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김창연 외, 2013)된다는 특징이 있다.

【 표 III-11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한 여성 NGO 지원 현황(2012-2014)

(단위 : 개,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누계
지원단체	전체	138	135	121	394
	여성 NGO	6	4	7	17
지원금액	전체	2,183,000	1,843,000	1,810,822	5,836,822
	여성 NGO	106,000	54,000	101,000	26,100
단체당 평균 지원금액	전체 평균	15,819	13,652	14,965	-
	여성 NGO 평균	17,667	13,500	14,429	-

자료: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현황자료 재구성

(3)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풀뿌리 여성조직 지원

부모커뮤니티란 부모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자녀와 관련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의미(서수경외, 2012)한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²¹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와 그 자녀, 지역주민 3인 이상이면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지역 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커뮤니티에

20)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지원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이다.

2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대한 지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지원대상 커뮤니티를 선정하고 있다. 2014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부모커뮤니티는 모두 140개이며, 2013년에는 전년보다 72개 늘어난 212개의 부모커뮤니티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금 총액은 2012년 약 6억원, 2013년 10억원 규모이다. 부모커뮤니티 활동가 및 참여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둔 전업부부가 적극적 소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 활동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함께 또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특징이 있다. 하지만 부모커뮤니티가 자녀문제 해결 주체로 여성이 부각되고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父)는 없고 ‘모(母)만 있는 커뮤니티’에 머물지 않도록 아버지 교육과 모임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표 III-12 ■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풀뿌리 여성조직 지원 현황(2012-2013)
(단위 : 개,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부모교육 커뮤니티	32	88
문화활동 커뮤니티	33	52
자녀교육 커뮤니티	28	35
지역봉사 커뮤니티	37	34
활동가양성 커뮤니티	10	3
합계	140	212

자료: 서수경 외(2012), 서울부모커뮤니티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 “서울·살·사람”(2014) 자료 재구성

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여성 NGO 지원사업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200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여성 NGO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²²⁾. 재단은 2003년에 여성 NGO 11곳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시설공간

2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정관 제1조(목적)와 정관 제4조(사업의 범위)에 근거해 여성 NGO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여성플라자) 지원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지역여성운동 모델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둔 풀뿌리 여성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연구와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2006년부터는 풀뿌리 여성조직 지원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1년에는 여성 NGO 지원에 집중되던 지원사업을 여성 소모임이나 동아리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2012년부터는 풀뿌리 여성조직보다 더 작은 ‘작은 풀뿌리’ 발굴 및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재단의 여성 NGO 지원사업은 여성활동가 발굴 및 지원(작은 풀뿌리를 통한 여성활동가 발굴과 청년젠더활동가 역량강화와 인턴십),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지원 및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그리고 간담회,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한 교류 협력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 표 III-13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 NGO 지원사업 현황(2003~2014)

(단위, 개, 천원)

연도	지원대상	단체수	단체· 모임당 지원예산	연도별 지원사업의 특징
2003	여성단체	11	3,000	단체별 사업비 지원 및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지원 시작
2004	여성단체 및 기관	5	5,000	지역여성운동 모델개발 프로젝트 : 지역여성육구조사
2005	여성단체	5	5,000	지역사회여성운동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 지역여성육구조사
2006	여성단체	5	5,000	풀뿌리 여성 활동 모델개발 프로젝트 : 지역여성육구조사 및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2007	여성단체	5	5,000	풀뿌리 여성 활동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 영상물 제작 및 지역조사 프로젝트
2008	여성단체	5	5,000	여성이 바꾸는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 영상물 제작 및 지역 여성 활동 심포지엄
2009	여성단체 시설기관	3	5,000	여성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Green Project
2011	여성 소그룹	14	500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2012	여성단체 풀뿌리단체	11	3-5,000	여성 NGO 및 풀뿌리 단체 지원 사업

연도	지원대상	단체수	단체 · 모임당 지원예산	연도별 지원사업의 특징
2013	작은 풀뿌리	8	1,000~2,000	여성 NGO 네트워킹 - 작은 풀뿌리 여성네트워크 지원사업 - 여성가족 NGO 역량강화 및 자원연계 사업 - 여성단체 상생프로젝트
2014	작은 풀뿌리	9	1,000~1,700	여성 NGO 네트워크 사업 - 여성활동가 발굴 : 작은 풀뿌리 발굴 / 청년 여성 인턴십 - 성장기반 조성 : 공간지원 / 활동가 역량강화 - 교류를 통한 성장 : 간담회 / 포럼 / 워크숍

자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3), 여성 NGO 네트워킹 사업결과 보고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4),
여성 NGO 네트워크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해 재구성

IV

서울시 여성 NGO 실태조사와 분석

1. 설문조사와 FGI 개요
2. 기본현황
3. 정체성 및 주요 역할
4. 활동가의 근무환경
5. 네트워크
6. 서울시 사업참여 및 젠더 거버넌스
7.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8.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시 여성 NGO 실태조사와 분석

1. 설문조사와 FGI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및 주요 조사내용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비영리민간단체,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협력네트워크에 등록된 서울시 소재 단체, 그리고 2012~2014년까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에 참여한 단체(이상 총 362개) 중 대표전화 및 이메일 등 정확한 연락처가 확보된 단체 총 238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이메일, 전화, 직접 방문 등 면접원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92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설문 중 유효하지 않은 4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서는 총 88부가 활용되어 유효한 응답률은 37%로 나타났다.²³⁾

조사내용은 여성 NGO의 일반현황, 여성단체의 정체성 및 주요역할과 기능, 여성 NGO 활동가의 근무환경, 네트워크 구축현황, 서울시 사업 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현황, 서울시 여성 NGO의 지속적 성장 요건 등 크게 6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범주별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설문조사 시 238개 단체 중 회수된 단체는 92부로 이는 일반적인 설문지 회수율에 비해서 낮은 수치이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단위가 개인이 아닌 기관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기관 당 1부로 배정하여 회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으나, 설문지 회수율이 낮은 것은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표 IV-1 】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단체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및 주 활동지역 - 설립연도 및 법적지위(법인형태) - 단체 구성원 현황 : 상근 활동가 수, 회원 수 등 -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방법
여성단체의 정체성 및 주요 역할·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로 생각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여성단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 현재 단체의 주요 활동 및 사업 분야, 주 사업 대상자
여성 NGO 활동가의 근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수 및 급여수준 - 활동가 근무시간 - 활동가의 활동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
네트워크 구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의 필요성 - 네트워크가 필요한 단체 또는 기관 - 현재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 - 네트워크 빈도, 네트워크 수준 및 얻은 성과 -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서울시와 여성 NGO간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사업 또는 정책과정 참여여부 및 참여한 방식 - 여성 NGO와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 - 서울시와의 협력의 어려움 - 서울시의 NGO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형태 - 서울시 민간단체공모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의 적정성
여성 NGO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간 거버넌스 구축 - 여성 NGO의 지속적 운영 및 활동 지원 - 다른 단체(기관)와의 네트워크 지원 - 단체 홍보 지원 - 활동 공간 지원 - 여성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2) 조사 참여단체의 특성

본 연구는 여성 NGO가 주요 분석대상으로, 이에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개인수준이 아닌 조직/단체 수준으로 설문이 구성되었다. 이에 일반적으로 설문

조사에서 활용되는 인구학적 특성이 아닌 단체의 특성을 단체의 소재지와 설립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외의 단체 특성은 다음의 분석결과에서 논의되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소재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남권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북권 22.7%, 동북권이 12.5%, 도심권과 동남권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 단체의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설립준속기간을 살펴보면, 설립된 지 5년 이하인 단체가 22.7%, 6년에서 10년 이하인 단체는 21.6%, 11년에서 20년인 단체는 33%, 21년 이상인 단체는 22.7%의 분포를 나타냈다. 특히, 설립된 지 1년도 안된 신생단체에서부터 설립된 지 90년이 넘는 역사적인 단체까지 설문대상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 설문응답 단체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응답자수	구성 비율(%)
전 체		88	100.0
권역	도심권(3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10 11.4
	동북권(8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11 12.5
	서북권(3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0 22.7
	서남권(7개)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37 42.0
	동남권(4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0 11.4
설립기간	5년 이하		20 22.7
	6~10년		19 21.6
	11~20년		29 33.0
	21년 이상		20 22.7

2) FGI 개요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 NGO의 대내외적 상황 및 정책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FGI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단체는 단체 설립시기와 조직형태, 활동 지역(범위), 주요활동 및 사업 분야, 주요 사업 대상자,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FGI 조사를 기획·진행하였다(〈표 IV-3〉). 조사는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2달에 걸쳐 총 11차례, 24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체간 일정 조정 등의 어려움으로 섭외대상 단체 중에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이 존재하였다.

표 IV-3 | 서울시 여성 NGO 집단별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FGI 조사 개요

조사 집단	조사 참여 단체 수(24개)	조사 일정
서울지부 형태 여성 NGO	3개	2014. 8. 6(수)
지역기반 형태 여성 NGO	2개	2014. 8. 7(목)
지역기반 형태 여성 NGO	2개	2014. 8. 22(금)
이슈별 여성 NGO-환경	4개	2014. 8. 8(금)
이슈별 여성 NGO-인권	2개	2014. 8. 12(화)
이슈별 여성 NGO-인권, 장애	3개	2014. 8. 27(수)
사이버공간 활동 여성 NGO	2개	2014. 10. 1(월)
이슈별 여성 NGO-인권, 성 평등	2개	2014. 10. 6(월)
지역기반 형태 여성 NGO	2개	2014. 9. 26(금)
지역기반 형태 여성 NGO	1개	2014. 10. 13(월)
지역기반 형태 여성 NGO	1개	2014. 10. 15(수)

(2) 조사 참여단체의 특성

FGI 조사에 실제 참여한 단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VI-4〉와 같다. 조사 참여단체를 대표하여 조사에 참여한 단체 구성원은 단체 대표, 사무국장, 실무활동가 등에 이르기까지 단체의 상황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조사에 참여해주었다.

표 IV-4 서울시 여성 NGO 집단별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참여단체 특성

단체	활동범위	지부 형태 유무	설립 연도	법적지위	등록 여부	예산	주요활동 및 사업분야	활동 및 사업대상
1	자치구 (지역단위)	지부 형태	1998	비영리 사단법인	지부형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근절 등)/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폭력피해여성
2	자치구 (지역단위)	지부 형태	1992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여성의지위향상/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근절 등)/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여성의 경제자립 및 경제역량강화/ 여성의 건강권 확립/ 공동체 풀뿌리 운동	마을(지역)여성
3	서울시전체	지부 형태	1922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3억원 이상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근절 등)/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공동체 풀뿌리 운동	청소년/ 청년(비혼)/ 일하는여성/ 마을(지역)여성
4	서울시전체/자치구 (지역단위)	×	2007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
5	자치구 (지역단위)	×	2010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여성의 복지증진 (취약계층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근절 등)/ 생태환경운동/ 공동체 풀뿌리 운동	청소년/ 마을(지역)여성
6	자치구 (지역단위)	지부 형태	2014	-	미등록	1천만원 미만	생태환경운동/ 공동체 풀뿌리 운동	마을(지역)여성
7	자치구 (지역단위)	지부 형태	2007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여성의지위향상/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근절 등)/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여성의 건강권 확립/ 생태환경운동	아동/ 청소년/ 마을(지역)여성
8	자치구 (지역단위)	×	1995	비영리 사단법인	서울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공동체 풀뿌리 운동	이주민/ 마을(지역)여성
9	전국단위/ 서울시전체	×	1999	비영리 사단법인	중앙부처/ 서울시	-	생태환경운동	아동/ 청소년/ 여성
10	서울시전체	×	2008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여성의지위향상/ 여성의 복지증진 (취약계층여성 지원 등)/ 여성의 경제자립 및 경제역량강화	이주민

단체	활동범위	지부 형태 유무	설립 연도	법적지위	등록 여부	예산	주요활동 및 사업분야	활동 및 사업대상
11	전국단위/서울시전체	×	2007	비영리 사단법인	중앙부처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여성의지위향상/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한부모
12	전국단위/서울시전체/자치구(지역단위)	×	2004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여성의 경제자립 및 경제역량강화/ 생태환경운동/ 공동체 풀뿌리 운동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마을(지역)여성
13	자치구(지역단위)	×	1991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여성의지위향상/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여성의 복지증진(취약계층여성 지원 등)/ 공동체 풀뿌리 운동	아동/ 노인/ 저소득층/ 마을(지역)여성
14	서울시전체	×	2005	비영리 사단법인	중앙부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여성의지위향상/ 여성의 복지증진 (취약계층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근절 등)/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통일 평화운동	탈북여성
15	서울시전체	×	2006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여성의 복지증진 (취약계층여성 지원 등)/ 여성의 경제자립 및 경제역량강화	장애인
16	전국단위/서울시전체/자치구(지역단위)	×	1998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3억원 이상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여성의 복지증진 (취약계층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근절 등)	장애인 저소득층
17	전국단위	×	1995	비영리 사단법인	중앙부처/ 서울시	3억원 이상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근절 등)/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공동체 풀뿌리 운동	아동 청소년 장애인
18	-	×	2003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
19	서울시전체	×	2012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근절 등)/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청소년
20	전국단위	×	2011	-	미등록	1천만원 미만	생태환경운동/ 공동체 풀뿌리 운동	모든 엄마
21	자치구(지역단위)	×	2005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공동체 풀뿌리 운동	마을(지역)여성

단체	활동범위	지부 형태 유무	설립 연도	법적지위	등록 여부	예산	주요활동 및 사업분야	활동 및 사업대상
22	자치구 (지역단위)	×	2010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여성의 경제자립 및 경제역량강화/ 생태환경운동	마을(지역)여성
23	전국단위/ 서울시전체/ 자치구 (지역단위)	×	2008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어린이 책 문화 운동 등	아동/ 청소년/ 부모
24	-	×	2011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중앙부처/ 서울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여성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등)/ 여성의 경제자립 및 경제역량강화	해외빈곤여성

주: 단체명 및 단체소재지는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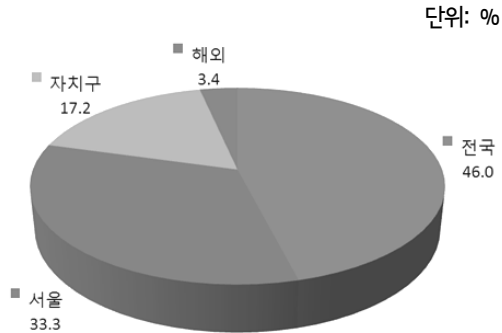
2. 기본 현황

1) 여성 NGO의 일반적 특성

(1) 활동범위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 NGO의 특성을 살펴보면, 활동범위의 경우 전국단위로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는 여성 NGO가 40개(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 NGO가 29개(33.3%), 자치구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 NGO가 15개(17.2%)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여성인권운동 및 지원을 비롯하여 국제연대활동을 하는 여성 NGO도 4개(3.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활동범위의 특성은 서울에 소재한 여성 NGO의 활동범위가 서울에 한정되지 않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단위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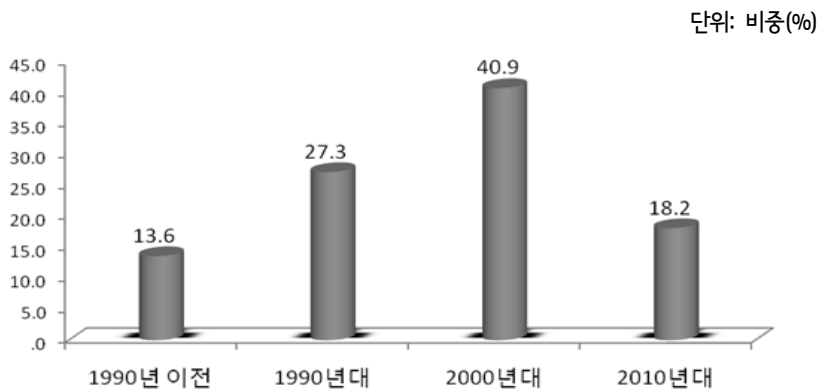
■ 그림 IV-1 ■ 여성 NGO의 활동지역



(2) 설립연도

여성 NGO의 설립연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 1990년 이전에 설립된 NGO가 12개(13.6%), 1990년대에 설립된 곳이 24개(27.3%), 2000년대에 설립된 곳이 36개(40.9%)의 분포를 보였다. 2010년 이후에 설립되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여성 NGO는 16개(18.2%)로 나타났다.

■ 그림 IV-2 ■ 설립연도별 여성 NGO 분포



FGI 조사 결과, 24개 참여단체 중 2000년대 이후에 신설된 단체는 16개로 이들 단체는 대부분 서울시 또는 자치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지역여성운동 단체와 함께,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들은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지역 이슈가 등장하거나, 그동안 생활 속 문제에 대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껴왔던 것을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함께 풀어내려는 지역 여성들의 움직임을 통해 확대되거나, 또는 이를 함께 풀어가려는 기존 여성 활동가를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단체12>는 오랫동안 재정비 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지역 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로 활동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단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여성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개발찬성과 반대가 아주 팽배하게 있는 곳이에요. 골목을 끼고도 이렇게 아직도 앞집, 뒷집으로 그런 문제들이 갈등으로 남아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생태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좀 마을 만들기를 해보자해서, 여성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마을이라고 만들었고요.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점점 지금까지 해서 확대하고 있어요. 환경측면에서 했지만 결국 자연과 사람과 마을이 연결이 되는 곳이니깐 저희가 좀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라는 걸로 마을에 이제 이사를 해서, 저희가 좀 구성원이 되고, 단체가 구성원이 되면서 좀 지금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단체12>

또한, 가정에서 전통적인 돌봄 역할을 하던 엄마들이 돌봄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활동이 시작·확대되고 있었다. 2010년 지역 내 도서관에 대한 필요에 의해 지역 엄마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22>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도서관을 운영하던 것에서 확장하여 모든 단체운동이 에너지, 탈 원전과 같은 도심 속 내 에너지 문제,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으로 단체 방향이 변경·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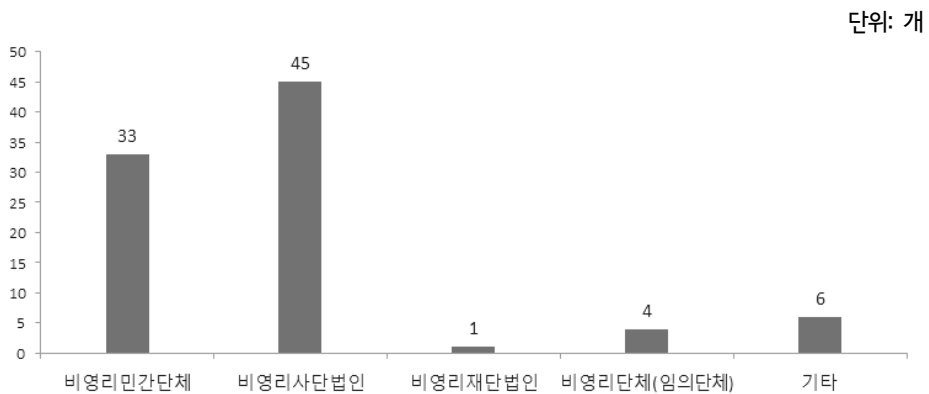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저희 도서관과 모든 운동은 에너지, 탈 원전과 같은 도심 속에 에너지문제,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방향을 그쪽으로 틀게 되었죠. 도서관 벽 한편에 도서관에 오는 회원들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막대그래프로 기록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절약운동을 펼치면서 그 벽이 서울시 환경상 대상을 받게 되었.

대기업이나 받을 대상을 어느 이름 모를 도서관의 벽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단체가 언론에 노출되고 우리가 하는 에너지 운동이 이슈가 되면서 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OO은 에너지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대부분의 활동가는 여성이고요.<단체22>

(3) 법적 형태

서울시 여성 NGO의 법적 형태를 살펴보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46개로 가장 많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3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임의단체)가 4개, 기타로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응답했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히는 여성 NGO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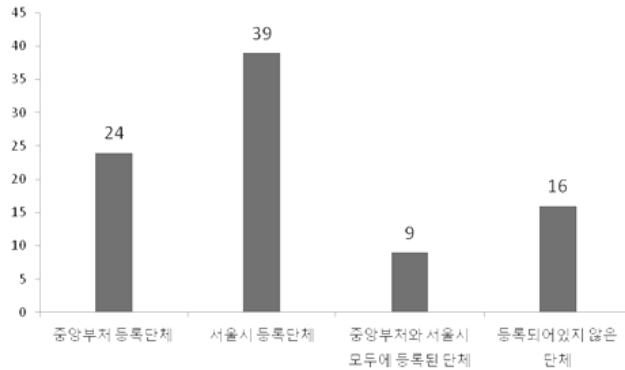
■ 그림 IV-3 ■ 여성 NGO의 법적 형태



NGO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 동법에 따른 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는 등 관련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설문 응답결과, 전체 88개 단체 중 중앙부처에 등록된 여성 NGO가 24개, 서울시에 등록된 여성 NGO가 39개,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여성 NGO가 9개, 미등록 여성 NGO가 16개로 나타났다.

■ 그림 IV-4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단위: 개



2) 인적·물적 자원 현황

(1) 활동가 및 회원 규모

설문조사 응답 단체의 상근활동가와 비상근 활동가, 자원 활동가 규모를 파악한 결과, 전체 평균 상근 활동가 수는 10.1명, 비상근 활동가 수는 22.3명, 자원 활동가 수는 58.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근 활동가 평균이 10.1명인데 이중 여성이 8.8명으로 상근 활동가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회원의 성별 구성면에서도 여성 회원이 86.3%를 차지하였다.

■ 표 IV-5 ■ 여성 NGO의 전체 구성원 비중

단위: 명, %

구분	상근 활동가수	상근 여성활동가수	비상근 활동가수	여성 회원비율	자원 활동가수
전체 평균	10.1	8.8	22.3	86.3	58.5

여성 NGO의 인적 규모를 단체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단체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여성 NGO의 인적 규모는 단체의 활동범위, 설립연도, 등록여부에 따라 편차가 큰데, 주목할 부분은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여성 NGO, 2000년 이후에 설립된 여성 NGO, 그리고 미등록 여성 NGO의 경우 상근 및 비상근활동가 뿐 아니라 자원 활동가 수가 매우 적다.

【 표 IV-6 】 단체 특성별 여성 NGO 구성원 비중

단위: 명

구분		상근 활동가수	비상근 활동가수	자원 활동가수
활동범위	전국	12.1	9.5	48.4
	서울	11.1	48.1	115.4
	자치구	4.3	4.9	18.3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18.3	74.3	112
	1990년대	16.4	6.8	86
	2000년대	4.8	15.7	27
	2010년대	4.4	5.9	49
등록여부	중앙정부	7.0	7.1	146
	서울시	14.8	37.3	29
	미등록	6.3	3.5	15

FGI 조사 결과, 모든 단체들이 상근 활동가 등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지만, 특히 2000년대 이후 설립된 자치구 단위의 신생 단체들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가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단체의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작년에 인건비 문제로 몇 분 선생님들이 관두셨고요. 지금 몇 분은 2년 이상 하고 계시고 한 분은 2년째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들 기관이 간당간당 하는 게 인건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지원)받은 게 있으니까 돌아가는데 운영해줄 분들, 사람이 없으니까 올해 안에 기관 문을 닫아야하나 말아야하나 그 말까지, 지금...〈단체10〉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사람은 있어요. 사람을 고용할 능력이 없는 거죠. 지역에서 찾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가 미안한 거죠.〈단체7〉

설문조사 결과,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여성 NGO와 미등록 여성 NGO는 상근활동가 뿐 아니라 자원 활동가도 평균 보다 훨씬 적다. FGI 조사 결과, 1990년대에 설립한 두 단체는 그동안 상근활동가의 회원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회원들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저희 지부는 회원 상근 활동가들이 회원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회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요.<단체1>

저희는 상근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저희도 서민분이나 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주시거든요, 재능기부로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다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거고 밥집도 매일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세 분씩 오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동센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와 회원 활동가들이 같이 활동을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죠, 사업을 진행 못하는 거죠.<단체13>

이처럼 여성 NGO가 회원을 확보하는 것은 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의미만이 아니라, 상근 또는 비상근 활동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자원 활동가를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회원 확보를 위해서 단체는 신입회원 교육, 회원 소식지 발간 등 회원사업과 회원 확보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서는 추가적인 회원 확보를 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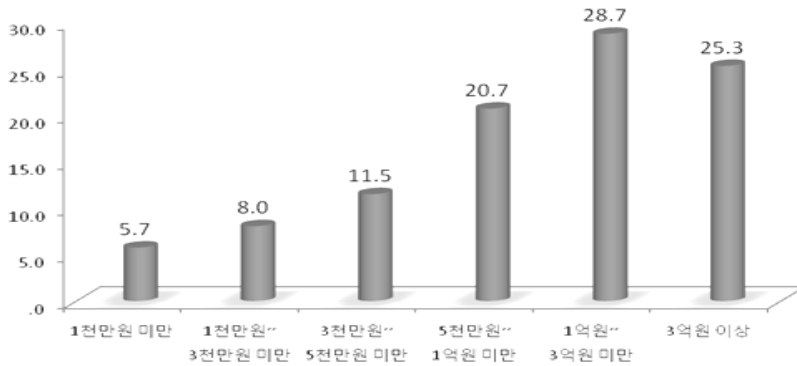
사실은 회원 확대한다는 것은 회원 사업을 또 그만큼, 여기서 닻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 인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원 수 유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단체4>

(2) 예산 규모

설문조사에 응답한 NGO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1년 예산이 3억 이상 부터 1천만원 미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1억~3억 예산규모를 가진 단체가 2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억 이상인 단체가 25.3%, 5천만원~1억 단체가 20.7% 순이었다. 그러나 5천만원 미만인 단체가 약 25%를 차지해 여성 NGO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년 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단체가 12개(13.7%)에 달했다.

그림 IV-5 여성 NGO의 예산규모

단위 : %



이러한 예산규모는 여성 NGO 내의 인력규모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예산규모가 큰 여성 NGO일수록 상근활동가와 자원 활동가 수가 더 많았다. 1년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여성 NGO의 경우, 상근 활동가 수가 평균 2.8명이고, 자원 활동가 수도 평균 1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연간 예산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여성 NGO의 비상근 활동가수가 34.9명으로 매우 높는데, 이는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상근 활동가가 아닌 비상근 활동가 형태로 유지하면서 여성 NGO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V-7 여성 NGO의 연간 예산규모에 따른 인력 차이

단위: 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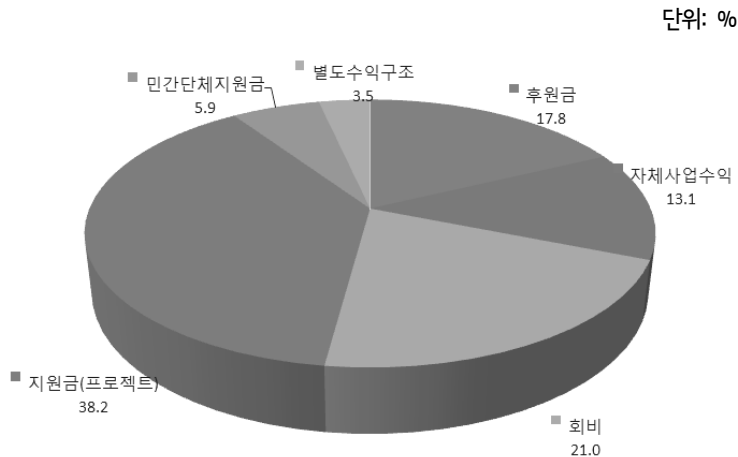
구분	상근 활동가수	비상근 활동가수	자원 활동가수
5천만원 미만	2.8	34.9	11
5천만원~1억 미만	3.1	5.4	31
1억~3억 미만	13.4	4.8	42
3억 이상	16.7	42.4	143

FGI 조사 결과, 그동안 상근 활동가로 활동해 왔던 활동가는 현재 반 상근으로 활동하면서 단체의 일손을 돕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반 상근으로라도 오게 된 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손 하나 보태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겠지. 이들이 지쳐하는데...〈단체5〉

재정적 자원과 관련하여 여성 NGO의 예산확보 방법을 전체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이 38.2%, 회비가 21%, 후원금이 17.8%, 자체사업수익이 13.1%, 민간단체지원금이 5.9% 등의 구성비로 나타났다. 여성 NGO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별로 정부나 지자체를 통한 지원금이 주요한 예산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및 민간단체 등 외부로부터 확보되는 예산(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후원금, 민간단체지원금)은 평균적으로 약 62%이며, 단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회비, 자체사업수익, 별도수익)은 약 38%의 비율로 외부자원에 대한 예산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6 | 예산확보 방법(전체 평균)



예산확보 방법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를 주된 활동지역으로 하는 여성 NGO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일명 프로젝트)에 예산을 의존하는 경향이 컸고, 자체사업수익이나 정부 외의 공익재단 등 민간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비중이 적었으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별도 수익구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립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역사가 오래된 여성 NGO의 경우 후원금 및 자체수익 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비중이 높았으며, 2000년대 이후 설립된 여성 NGO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신설된 단체의 경우 별도 수익구조의 비중이 14.5%로 설립연도가 오래된 여성 NGO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단체 등록여부별로 보면 미등록단체는 상대적으로 회비의 비중이 낮고 별도 수익구조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확보 방법을 볼 때 2000년대 이후에 설립된 여성 NGO의 경우 예산의 40% 이상을 정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어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회비 등 자체 자원 비중이 낮으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별도의 수익구조에 의한 예산확보가 이뤄지는 양상을 보였다.

【 표 IV-8 】 예산확보 방법

단위: 비중(%)

구분		후원금	자체사업 수익	회비	정부 지원금	민간단체 지원금	별도 수익구조
전체 평균		17.8	13.1	21.0	38.2	5.9	3.5
활동 범위	전국	16.3	13.8	22.0	34.5	8.4	4.1
	서울	16.9	13.2	20.0	43.3	4.8	1.5
	자치구	18.3	10.6	21.7	43.2	0.7	6.2
설립 연도	1990년대	17.1	19.8	22.6	37.0	5.5	0.0
	2000년대	14.7	9.3	22.2	42.0	9.7	0.6
	2010년대	18.9	9.3	11.5	43.4	2.4	14.5
등록여부	중앙정부	20.4	11.3	22.1	36.8	6.7	2.3
	서울시	17.7	13.9	22.4	40.3	5.1	0.5
	미등록 단체	19.1	10.8	13.3	35.2	7.3	12.9

FGI 조사 결과, 정부 프로젝트에 의존도가 높은 여성 NGO는 자생력을 잃지 않을 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여성 NGO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등 별도의 수익구조는 단체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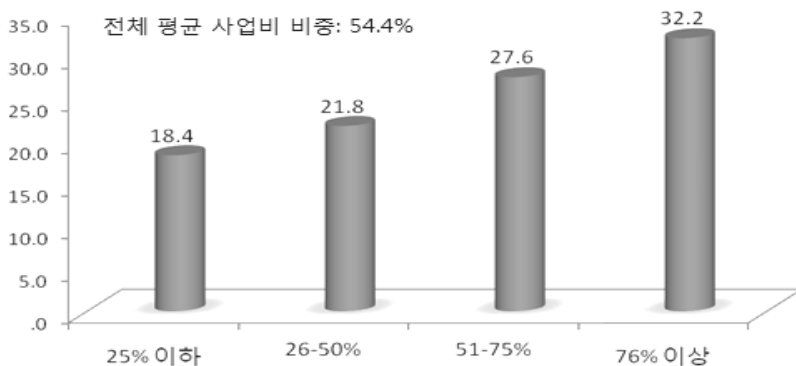
프로젝트를 딸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이것을 하면 그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로움이 아니라서 버거운데...그의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도 우리의 자생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하고 있어서 그것은 조절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단체5>

비영리 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 사회적기업의 목적 안에 예를 들면 그 비영리 단체 운영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에서 남은 이윤을 이 쪽에도 쓸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그럼 분리해라! 아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단체11>

그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속해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사회적 기업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회적 기업에서 버는 적은 돈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은 분리는 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분리는 되어있지만,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적은 돈으로 이렇게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겨우겨우 충당해가고 있거든요.<단체10>

다음으로 여성 NGO의 지출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4.4%였다.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6% 이상인 단체가 32.3%, 51~75%인 단체가 27.6%로 나타나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업비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예산확보 방법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 인건비가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 NGO의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고 사업비 비중이 가장 큰 구조로 해석된다.

【그림 IV-7】 사업비 비중



여성 NGO의 사업비 비중은 설립연도, 예산규모, 단체의 여성정체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신생 여성 NGO일수록, 예산규모가 작은 소규모 여성 NGO일수록, 여성단체라는 정체성이 있는 여성 NGO일수록 상대적으로 사업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생단체이자, 소규모단체이면서, 여성단체라는 정체성이 있을수록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재정적 자원을 의존하는 경향과 상근활동가의 인건비 비중이 더 낮은 현실을 보여준다.

표 IV-9 단체특성별 사업비 비중

단위: %

구분		사업비 비중
전체 평균		54.4
설립연도	1990년 이전	47.8
	1990년대	52.0
	2000년대	53.8
	2010년대	64.4
예산규모	5천만원 미만	62.3
	5천만원-1억 미만	61.6
	1억-3억 미만	46.7
	3억 이상	48.6
여성단체 정체성	예	56.9
	아니오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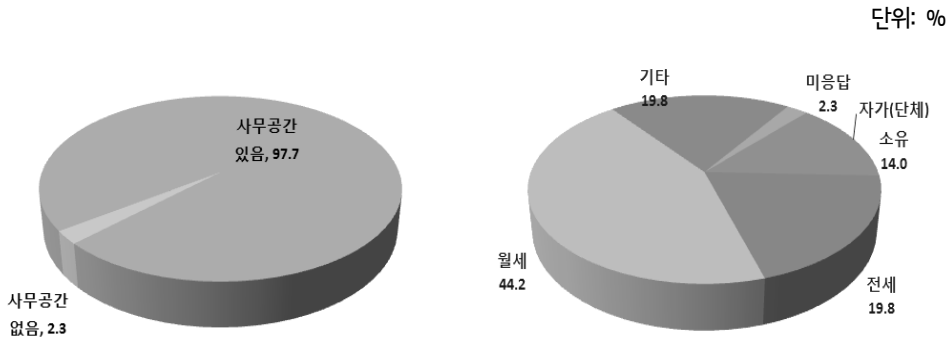
FGI 조사 결과 여성 NGO들은 정부 지원사업에 사업비 외에 인건비가 제한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했다. 즉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NGO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해결되기 원하는 부분은 사업에 활동가의 활동비 또는 인건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가에게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여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제기하였다.

NGO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제가 우선적으로 있고, 그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지원 사업에 광장히 많이 의존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원 사업 조차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단체 내부 활동가에게 어떤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어요. <단체18>

(3) 사무공간

단체의 중요한 물적 자원 중 하나인 사무공간의 경우, 사무공간을 갖고 있는 단체가 86개(97.7%)로 나타나 대부분의 단체가 사무공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무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단체는 2개(2.3%)로 나타났다. 사무공간의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월세가 39개(4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세 17개(19.8%), 기타 17개(19.8%), 단체 소유 12개(1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지자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무실을 월세로 사용하는 여성 NGO의 경우, 사무공간 유지에 대한 재정부담이 매우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IV-8 사무공간의 존재여부 및 소유형태



FGI 조사 결과 여성 NGO들은 사무실 공간을 옮길 때마다 해당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임대비 지급이 단체의 재정으로 충원하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 문제의 해결이 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했다. 특히 미등록 단체 중 현재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단체6>은 사무공간을 준비하면서 이로 인해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저희는 2년마다 옮겨 다녀서 자꾸 중단이 되고, 사업이 공간이 옮겨 다닐 때마다 그쪽 주민에게 맞는 내용도 찾아야 되고, 지금은 저희가 초등학교 앞이어서 도서관위주 사업을 내세워서 이제 마을아이들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도서관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런 열악한 조건이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단체8>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갖는 이유가 임대비가 나가면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가 건물을 갖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죠.<단체3>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딱 사무실을 개소한다니까 정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그동안은 사무실이 없어서 이런 고민을 안했거든요. 막상 사무실 개설하면서 오랫동안 뭔가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근 문제 등...<단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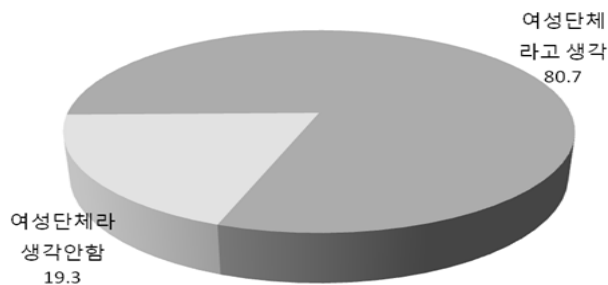
3. 정체성 및 주요 역할

1)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

설문조사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설문은 여성 NGO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나, 스스로를 여성단체로 인식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활동방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단체 중 71개(80.7%)가 스스로 여성단체로 인식하고 있었고, 나머지 17개(19.3%)는 여성단체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그림 IV-9 ■ 여성단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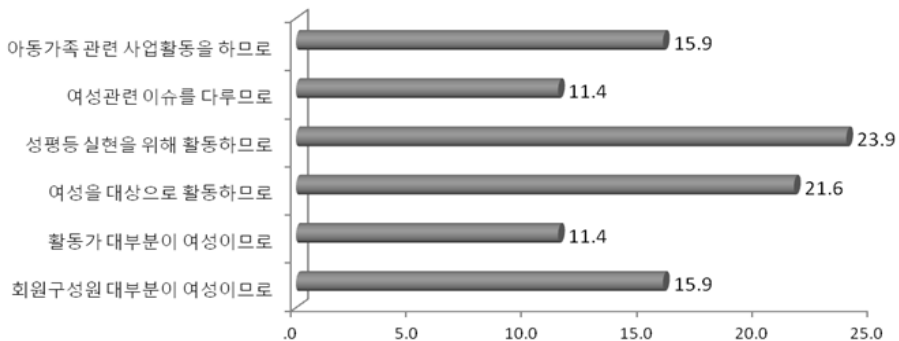


여성단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첫째, 단체의 사업 대상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단체들의 경우 여성만이 아닌 모든 시민, 모든 장애인, 모든 사회적 약자 등 사업 및 서비스 대상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회원 구성 비율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단체의 회원이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었다거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이유이다. 셋째, 여성이 아닌 가족 및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여성단체로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성 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는 이유가 23.9%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활동한다는 이유가 21.6%, 회원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와 아동가족 관련 사업 수행 이유가 각각 15.9%로 그 뒤를 이었다. 설문결과, 단체의 목적(성 평등 실현), 정책 대상(여성), 주체(회원) 등을 여성단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IV-10 ■ 여성단체라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비중(%)



FGI 조사 결과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성단체로서 활동하는데 ‘여성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표명하였다. <단체1>은 기본적인 단체 활동이 여성주의 일 수 밖에 없으며, 활동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활동 회원들은 여성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교육은... 왜냐하면 전문상담원 교육을 거친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건강모임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지만, 후원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성주의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요.<단체1>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18>은 여성주의를 표방하며 시작한 단체로, 현 시점에서 여성 NGO들의 고민이 여성주의라고 이야기 하였다. 여성단체가 생존할 수 있는 근간이 여성주의이지만, 여성주의 인식이나 의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던 시기가 지나고 지금은 여성주의에 대한 지지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개별 단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십 년간 서울 지역을 본부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3>은 여성단체로 시작하였지만, 모든 일에 단체가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이 대중화되었던 시기를 지나서 여성운동이 해왔던 시기만큼 여성주의 인식이 확산되었냐고 한다면 그렇게 보기 힘든 거 같고...이거 자체가 여성단체가 생존할 수 있는 너무 기초적인 베이스인데 너무 약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지금은 여성주의가 왜 필요하냐? 라는 얘기가 전반에 깔려있어서, 여성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굉장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힘든 점이에요. 그걸 단체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돌파할 수 없는 부분인거여서, 여성운동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모여서 여성회의를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한번 여성 진영이 다 같이 모여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 여성운동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단체18>

저희는 일단은 원래 여성단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우리 안에 모든 일에 여성주의적인 시각이 있지! 하고 위안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단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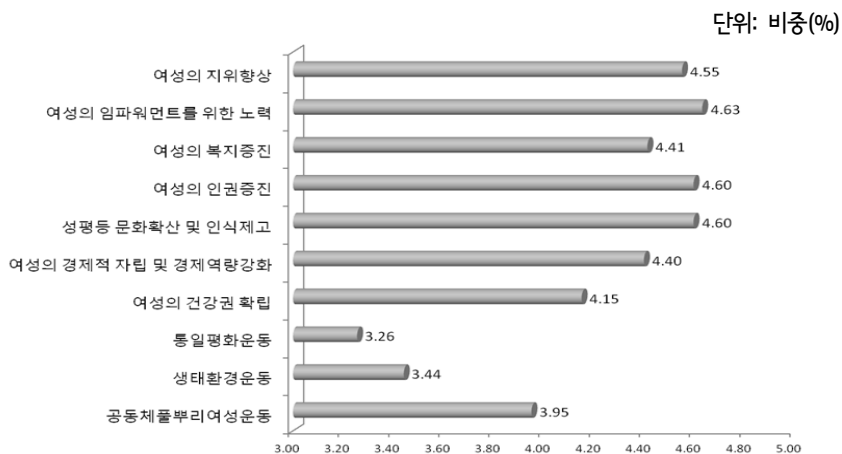
이처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볼 때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도 있지만, 단체 내에 모든 구성원이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고민하는 단체들도 있었다. <단체1>은 여성주의 NGO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여성주의 NGO들과 다른 단체들이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여성 NGO 안에는 여성주의, 여성의 문제를, 여성운동적인 단체도 있고,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도 있고, 또 여성들이 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고정화된 성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주의 NGO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여성 NGO들이 성역할 중심이 아닌 여성 NGO들과 교류하면서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단체1>

2) 여성단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다음으로 여성단체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즉 여성 NGO 스스로 여성단체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결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노력이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4.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여성의 인권증진 및 성 평등 문화확산이 각각 4.6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뒤로 여성의 지위향상(4.55점), 여성의 복지증진(4.41점), 여성의 경제적 자립(4.40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통일평화운동(3.26), 생태환경운동(3.44) 등은 여성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역할과 기능으로는 낮게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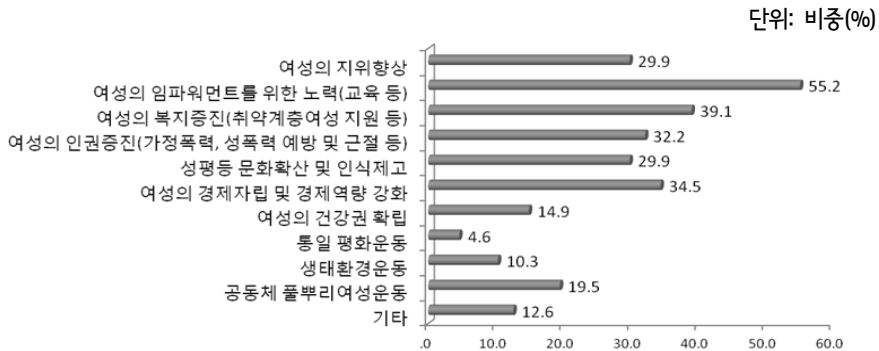
■ 그림 IV-11 ■ 여성단체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복수응답)



여성단체에 요구되는 역할과 더불어, 설문대상 단체가 현재 하고 있는 주요 활동 및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 단체 중 가장 많은 단체가 교육훈련 등을 통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5.2%). 이는 여성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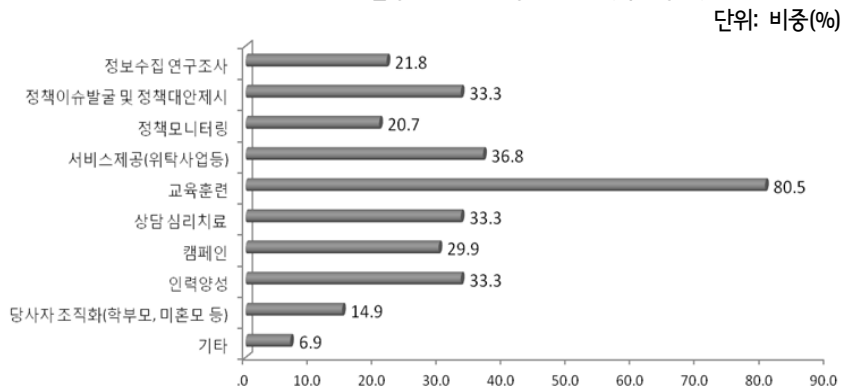
로서 스스로 인식하는 역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여성의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39.1%,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34.5%,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 여성보호 및 여성인권증진 활동 단체가 32.2%로 그 뒤를 이었다.

■ 그림 IV-12 ■ 단체의 주요활동 및 사업 분야(복수응답)



현재 단체 활동의 주된 내용과 방식의 경우, 교육훈련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 외의 다른 활동내용 및 방식이 40%미만의 비중인 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현재 여성 NGO의 경우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여성의 임파워먼트 향상,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인권 증진 등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탁사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36.8%), 정책이슈 발굴(33.3%), 상담심리치료(33.3%), 인력양성(33.3%) 등을 주된 활동내용과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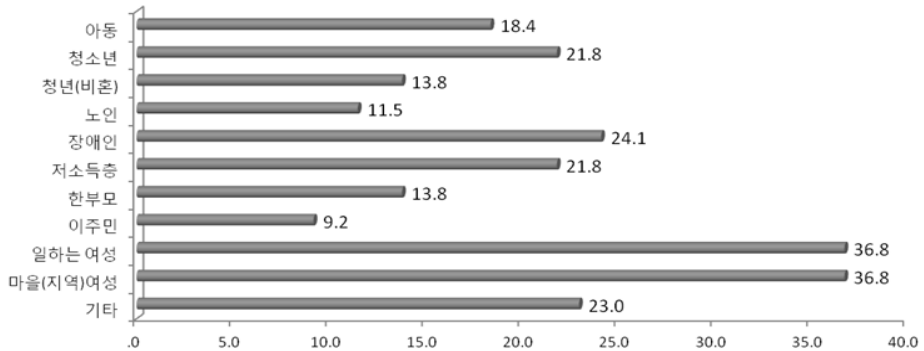
■ 그림 IV-13 ■ 단체 활동의 주요내용과 방식(복수응답)



또한, 현재 여성 NGO의 주요 정책대상은 일하는 여성, 마을 및 지역여성이 각각 3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장애여성(24.1%),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각 21.8%)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IV-14 ■ 단체의 주요 대상(복수응답)

단위: 비중(%)



이처럼 설문응답 단체들의 주요 활동 및 사업 분야와 활동하는 방식, 주요 활동 대상을 종합하면, 서울시 여성 NGO들은 주로 마을 및 지역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의 방식을 통해 여성의 임파워먼트 향상,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인권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GI 조사 결과, 지역여성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21>은 마을의 오만가지 일에 다 관여하면서 마을에서 오랜 시간 지역여성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이 힘을 받을까나 여성 임파워먼트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여성들을 만나면서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마을에 오만가지 일에 다 관여가 되었어요. 마을에서 관계 맺기 하는데 과정과 시간이 꽤 걸렸어요. 지역에서 여성운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여성운동이라고 할 때 '저것들, 싹땀들, 지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여성이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힘을 받을까? 첫째 여성 임파워먼트로 살아가는 게 뭐냐? 라는 주제로 1년차를 보내고, 일상적인 소재가 뭐가

있을까 해서 영화제를 1년 내내 했었고, 올해는 여성 풀뿌리 포럼이라고 해서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기획회의를 통해 소재를 뽑고, 이슈를 발굴하고...마을에서 선배 맘들이 키우는 아이 키우기, 이런 시도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 <단체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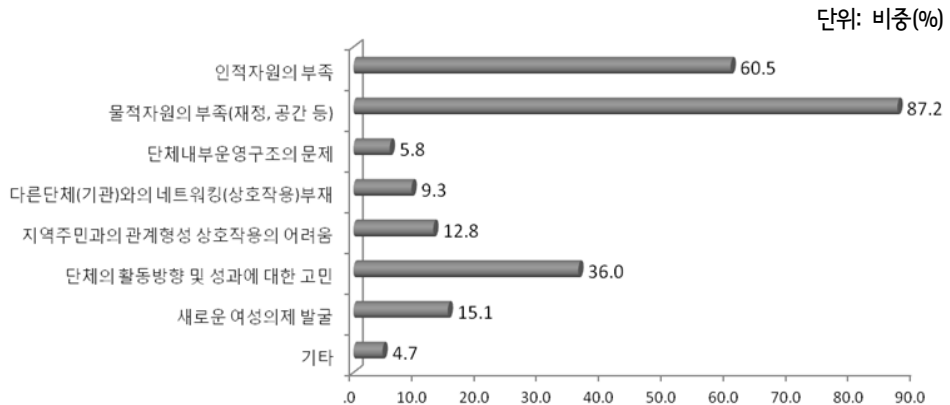
또한,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2>는 지역 내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운동’ 측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지역 여성운동 단체로서의 자부심이 덜해졌다는 고민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저희도 어려운 것은 운동에 대한 측면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고민이 들어요, 운동을 그러면 어떤 그룹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덜 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중략> 사람들이 변화된 게 있긴 해요, 그런데 저희도 그러한 변화를 잘 못 읽어내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변했나보다’ 그 정도지. <단체2>

3) 여성단체의 어려움

현재 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재정적 자원을 비롯한 물적 자원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하였으며(87.2%), 그 다음으로 인적자원 부족 문제가 60.5%의 비중을 나타냈다.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어려움 이외의 경우, 단체의 활동방향과 성과에 대한 고민이 3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 NGO 스스로 단체의 정체성과 비전 등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IV-15 ■ 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응답)



FGI 조사 결과, 단체 활동방향과 성과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2>의 경우, 단체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단체의 조직화와 연결되지 못해서 단체의 역량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지금은 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도 조직하고는 연결되지가 않아요.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도 조직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단체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물음이 계속 와서 되지 않고 있고, 역량에 넘쳐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조직은 도움이 안 되고 또 회원들은 뭘 하는지 모르고...그래서 이런 상태여서 요즘엔 저도 참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단체2>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 NGO들은 지역여성뿐 아니라 조직 내 회원들, 그리고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활동의 중심에, 주체로 서는 것을 위해 활동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뿐 아니라 정책 등 공적 영역까지 변화되는 것을 단체의 성과로 생각하며, 이렇게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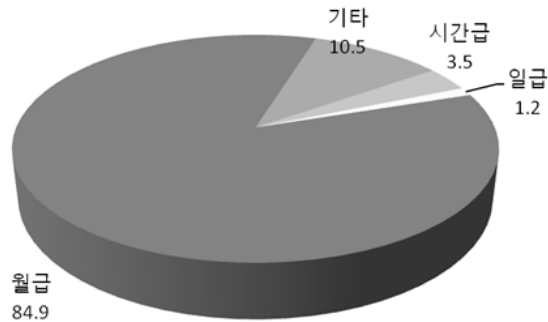
실제로 지역의 어떤 여성자원이 되고 그런 자원들이 지역을 실제로 바꾸어 내는 것까지 이어지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부 같은 것을 만들고 지부에서 지자체 감시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보다 좀 세력화 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면 그런 것이 진짜 성과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단체4>

4. 활동가의 근무환경

1) 급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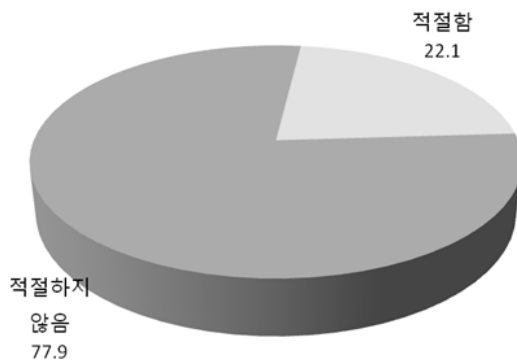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여성 NGO 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수준의 현황을 조사함과 더불어 개인수준에서 여성 NGO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객관적인 근무환경을 조사하였다. 먼저, 급여형태를 살펴보면 설문응답자 대부분이 일반적인 월급형태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75개, 84.9%). 다음으로 기타(9개, 10.5%), 시간급(3개, 3.5%), 일급(1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기타의 경우 무급으로 활동하는 응답도 존재하여 상근활동가로서 인건비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IV-16 ■ 여성 NGO 상근활동가에 대한 급여형태
(단위: %)



상근활동가의 급여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비중이 22.1%(19개)이며 나머지 77.9%(69개)는 현재 여성 NGO 상근활동가들의 급여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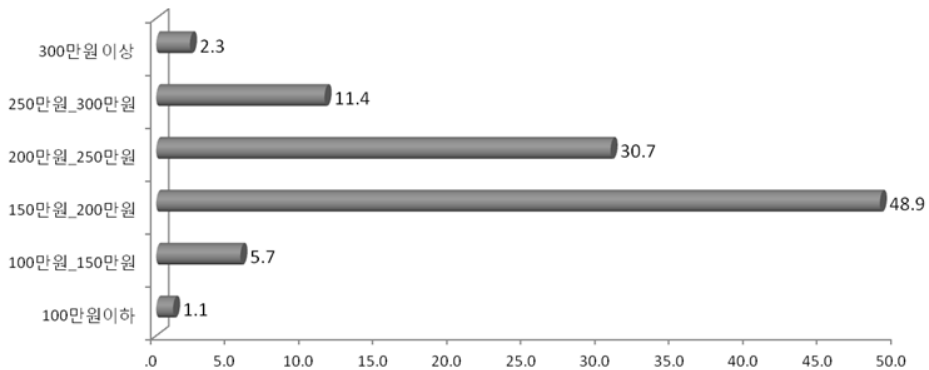
■ 그림 IV-17 ■ 여성 NGO 상근활동가 급여 수준의 적절성
(단위: %)



급여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단체 활동과 가족과의 삶을 비롯한 개인적인 삶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하였다. 이에 150~200만원이라고 응답한 곳이 43개(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250만원이라고 응답한 곳이 27개(30.7%)였다. 이 외에 150만원 이하로 응답한 곳도 6개(6.8%)에 달했다.

■ 그림 IV-18 ■ 여성 NGO 상근활동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

단위: 비중(%)



이러한 상근활동가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FGI 조사 결과, 활동가들은 최저 생계비 수준 정도의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생계형 활동가의 경우는 이러한 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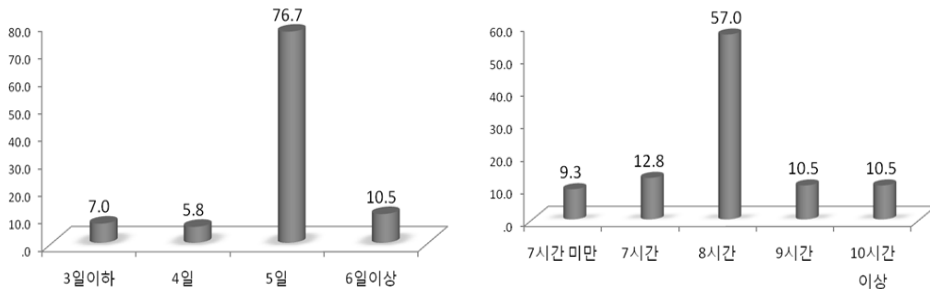
재정적으로 자립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단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활동가들이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생계형 활동가가 되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최저 생계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노후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없다는 거죠.<단체1>

2) 근무시간

여성 NGO 활동가들의 근무시간의 경우, 여성 NGO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너무 과도한 활동으로 일가정 양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주당 평균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주 5일 근무 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76.7%)을 차지했다. 그러나 3일 이하에서부터 6일 이상까지 단체마다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하루 8시간 근무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57%)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7시간 미만인 3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인 12시간까지 단체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이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적 및 물적 자원)의 규모에 따라 그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그림 IV-19 ■ 여성 NGO 상근활동가 주당 평균 근무일과 하루 평균 근무시간

(단위: %)



이에 여성 NGO 단체의 특성에 따라 주당 평균근무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적으로 평균 주당 39.6시간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주당 40시간 근무에 근접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자치구 중심의 단체의 경우 전국이나 서울시를 활동범위로 하는 단체에 비해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립연도별로 살펴보면, 설립역사가 오래된 단체에 비해 신생단체의 경우 근무시간이 적는데, 이는 신생단체의 경우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등 재정 규모의 열악함으로 상근활동가를 주당 40시간 근무로 고용할 수 없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산규모가 큰 단체의 경우 근무시간이 많은 반면, 예산 규모가 작은 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1년 평균 예산 규모가 3억 이상인 단체는 43.5시간인 반면, 5천만원 이하인 단체는 32.6시간이다.

■ 표 IV-10 ■ 여성 NGO 상근활동가 주당 평균 근무시간 차이

(단위: 시간)

구 분		상근활동가 주당 평균 근무시간
전체 평균		39.6
활동 지역	전국	39.5
	서울	39.2
	자치구	42.2

구 분		상근활동가 주당 평균 근무시간
설립 연도	1990년 이전	42.5
	1990년대	41.0
	2000년대	39.4
	2010년대	36.2
예산 규모	5천만원 미만	32.6
	5천만원-1억원 미만	39.1
	1억원-3억원 미만	41.5
	3억원 이상	43.5

이러한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FGI 조사 결과, 여성 NGO들은 현재의 상근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사업 및 활동영역의 확장에 따른 추가 활동가 영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근 활동가에게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부과되었다. 결국 상근활동가는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단체 사업 발굴 및 확장, 단체 이슈 발굴 등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활동가 일단 상근활동가들은 행정을 하다보면 치여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였고, 사회적으로 내용을 공유하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할 시간이 없는 점, 내용을 같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이슈 발굴의 여유가 없고...〈단체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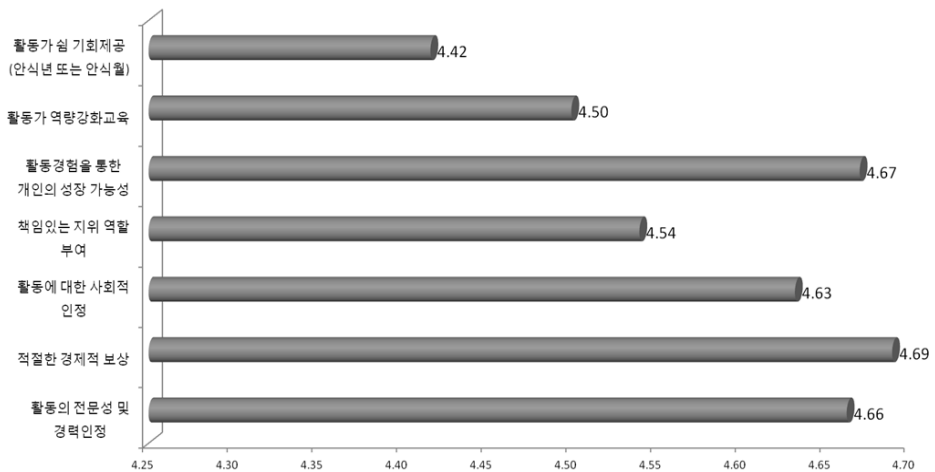
급여가 작다보니까 예전에 활동하던 지역 활동가분들만 계속 남아있고 새로 구하는 활동가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사무실 지킴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다 제가 내야 하는 거죠.〈단체8〉

단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지만 이거를 진행할 사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상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찾는다고 해도 당장 이 사업 너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사업만큼 같은 규모를 또 늘리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인 한계도 있죠.〈단체7〉

3) 활동지속을 위한 근무여건

마지막으로 여성 NGO 활동가들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여성 NGO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4.6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활동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장가능성(4.67점), 활동의 전문성 및 경력 인정(4.66점),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4.63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외재적 동기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 사회적 지지 등 내재적 동기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0 여성 NGO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



이와 관련한 FGI 조사 결과, 여성 NGO 활동가들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활동가들의 활동이 '전문적 활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으로 평가절하 되는 느낌을 많은 받는다는 <단체4>의 활동가는 활동가들의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대가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노동시간이 이렇게 많은 사회인데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우리같이 헌신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노동을 자발적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전문적 활동가들이 하는 노동은 평가절하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되게 자존심이 상해요. 활동가들이 하는 노동에 대해 사회적 노동이라고 인정해주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것이 됐으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단체4>

또한 지역에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22>는 현재 마을에서 돌봄, 육아, 교육, 안전 등 해야 하는 일의 가지 수는 다 드러났으며, 이제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자립마을이 아니라 ‘활동가 에너지 고갈 마을’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활동가들의 활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인정뿐 아니라, 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여성 활동가의 활동기간이 ‘경력단절여성’으로 지낸 기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체20>은 활동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었지만, 전문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민한 아줌마’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3-4년간 자원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과연 경력단절여성이나? 그 경력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내가 한 활동이 어떤 인턴십이나 경력에 인정에 되든지, 최소한 돈이더라도 계산이 되든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싫어서가 아니고,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들고 지쳐서 떠날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단체22>

기자가 방사능 고철이나 폐기물 때문에 이슈가 되어서 전화가 오면 얘기를 해요. 실컷 30분 설명해줬더니 마지막에 전문가 분 좀 소개해달라고 해요. 저도 3년간 자료 보면서 어느 정도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불안에 떠는 아줌마 역할 밖에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시선,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이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예민한 아줌마들, 치마 바람이 센 아줌마들 이정도 수준으로 밖에 보지 않는 거...<단체20>

5.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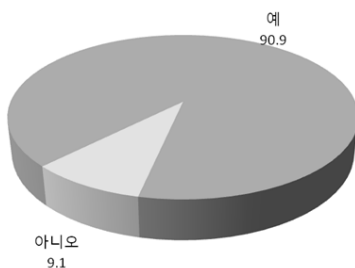
1) 네트워크 필요성 및 구축 현황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간 공동 노력, 공동 자원, 공동 의사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NGO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이유는 단체의 역량강화 및 정보접근성 제고, 단체간 교류 및 관계망 형성·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 NGO들이 네트워크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

여성 NGO의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체 대부분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0.9%), 현재 다른 단체 혹은 기관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단체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8.9%). NGO의 환경적 맥락에서 특히, 여성 NGO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원 불충분성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협력적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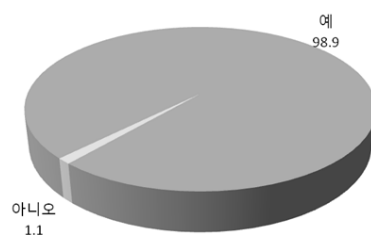
■ 그림 IV-21 ■ 네트워크 필요성

단위: 비중(%)



■ 그림 IV-22 ■ 현재 네트워크 여부

단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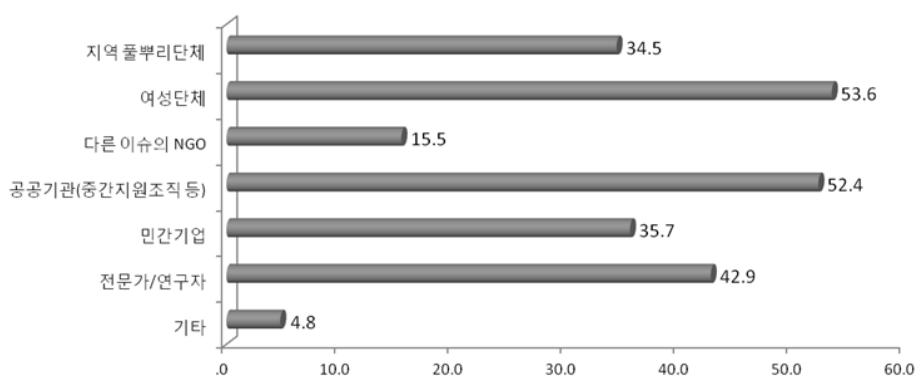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단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였다. 여성 NGO의 경우 여성단체간 네트워크 필요성, 중간지원조직 등 정부 및 공공부문과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단체를 네트워크 필요 대상으로 응답한 비중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52.4% 비중을 나타냈다. 그 뒤로 전문가/연구자가 42.9%, 민간 기업이 35.7%, 지역풀뿌리 단체가 34.5% 순이었다. 이에 반해 여성 이외의 다른 분야 이슈를 다루는 NGO와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 그림 IV-23 ■ 네트워크 필요 대상 (복수응답)

단위: 비중(%)



FGI 조사 결과,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단체의 경우 여성 NGO의 의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네트워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개개의 단체들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단체간 공동으로 주요한 여성단체의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슈 발굴을 위한 토론회나 간담회 개최와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금 여성운동계, 여성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이 의제라는 것이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토론회, 집담회는 우리가 좀 같이 기획하고 만들면 좋겠어요. 요즘에 여성 노동자들, 여성인권문제 가지고 민주노총 중심으로 여성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1인 시위 같은 것도 하고 연대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시 이런 여성인권문제, 여성노동인권문제에 관해 같이 공동대응을 넓히고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너무 그런 틀이 없으니까.(단체4)

단체의 이슈를 함께 발굴해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 NGO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단체4>는 여성 NGO 가운데 규모가 작은 단체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후원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므로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회원모집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여성단체들이 회원이나 후원금액을 확보해 가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작은 단체들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후원 회원 되기도 어려운데 큰 프로모션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 금액, 후원금액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좀 고민하게 되는... 여성 단체들도 할 수 있을까? 큰 단체들은 굳이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작은 여성 단체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까? 그러면 노란 봉투처럼 뭔가 획기적인 기획 아이템이 있어야겠죠? 이걸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럼 ○○도 참여 할 텐데...<단체4>

후원회원 또는 후원금액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모집하는 것 외에도, 여성 NGO들은 활동가 모집·양성 및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NGO간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 및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NGO가 다루는 영역은 굉장히 전문화되어있어요. 그 전문성 정도가 이제는 되게 높기 때문에, 대학 다니다가 트레이닝 되어 바로 오는 구조가 아닌 것들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활동가로 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모집이나 중간에 교육하거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가 함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단체17>

여성 NGO 활동가들은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한다. 이는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간의 교류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활동가뿐 아니라, 20년 이상 활동을 해 온 활동가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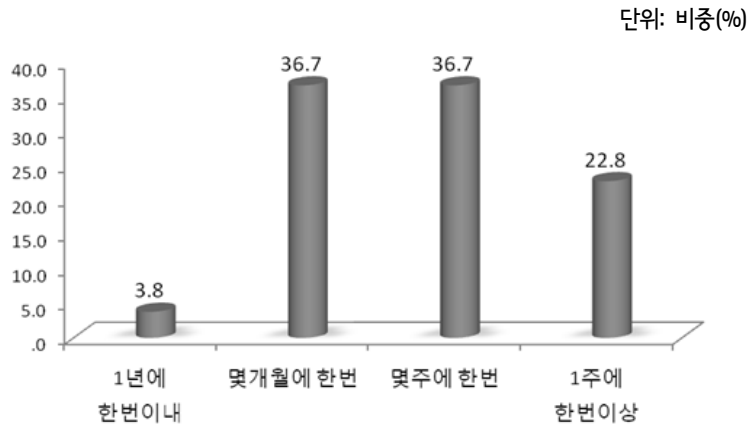
또 제가 대외활동을 하면서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역량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 지치게 될지 모르겠지만...내부에서 에너지 못 받는 걸 나가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시민 단체 활동가로서 저희 지역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요.<단체1>

그러다 보니깐 이 활동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런 거는 주변사람과 얘기하고 소통하고..말씀하신 대로 활동가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 이러면서 좀 뭐랄까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선생님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고,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는 쉽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슬럼프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단체13>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내려놓을 부분도 생기고,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을 보고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구요. <단체5>

네트워크 필요성과 함께 실제 네트워크 구축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단체와 네트워크를 주로 맺고 있는 단체가 59.5%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39.2%, 지역풀뿌리단체 및 전문가/연구자가 34.2% 순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네트워크에 있어서 단체 또는 기관간의 빈번한 접촉은 상호 협력 및 신뢰구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중요한 요소이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1주에 한번 이상 접촉하는 기관이 22.8%이며, 몇 주에 한번, 몇 개월에 한번으로 응답한 비중이 각각 36.7%였다. 또한, 1년에 한번 이내로 접촉빈도가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3.8%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여성 NGO는 주된 네트워크 대상 단체와 적어도 몇 개월에 한번 이상은 접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접촉빈도 측면에서 볼 때, 여성 NGO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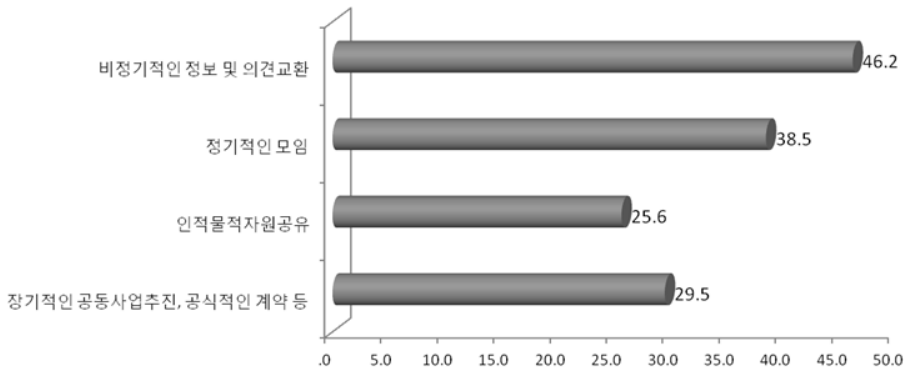
■ 그림 IV-24 ■ 네트워크 단체와의 접촉빈도



네트워크의 협력은 단순한 정보교환 등의 비공식적 협력에서부터 공동사업 추진 및 공식적 계약을 통한 협력까지 협력의 정도가 다양하다. 협력정도가 강할수록 더 높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협력 정도의 경우 비정기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어 46.2%였고, 다음으로 정기적인 모임이 38.5%, 장기적인 공동사업 및 공식 계약이 29.5%, 단체 간 자원의 공유는 가장 적은 비중인 25.6%를 나타냈다. 기본적으로 단순한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적 협력이 여성 NGO 네트워크에서 주된 협력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의 기초가 되는 정기적인 접촉 비중이 상당 수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며, 특히, 강한 협력 정도가 요구되는 공동사업 추진 및 공식적인 계약관계가 29.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 NGO의 경우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한 전략적인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그림 IV-25 ■ 네트워크 협력 정도(복수응답)

단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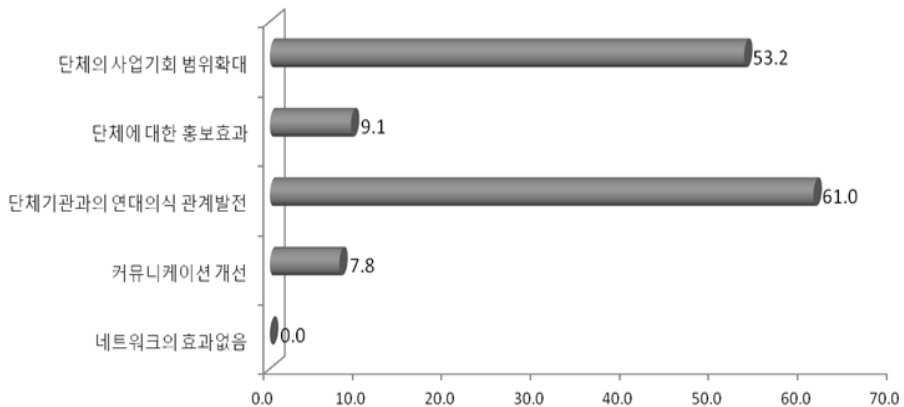


2) 네트워크 성과 및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 네트워크 성과와 관련하여 단체 및 기관과의 연대의식을 비롯한 관계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며(61%), 다음으로 사업기회 및 범위의 확대를 주요 성과로 응답하고 있다(53.2%). 반면, 홍보효과와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트워크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단체는 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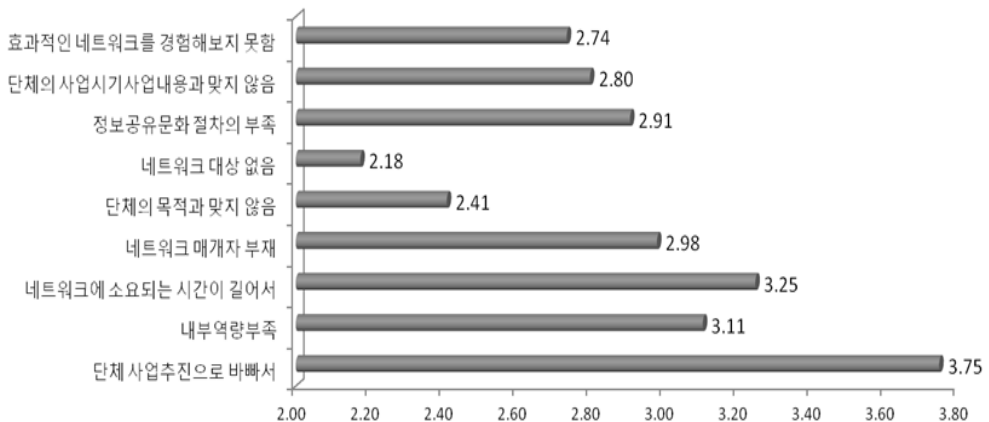
■ 그림 IV-26 ■ 네트워크 성과(복수응답)

단위: 비중(%)



다음으로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와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였다.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서 단체의 사업 추진으로 바빠다는 이유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라는 이유가 3.25점, 내부역량 부족이 3.1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자원의 부족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 그림 IV-27 ■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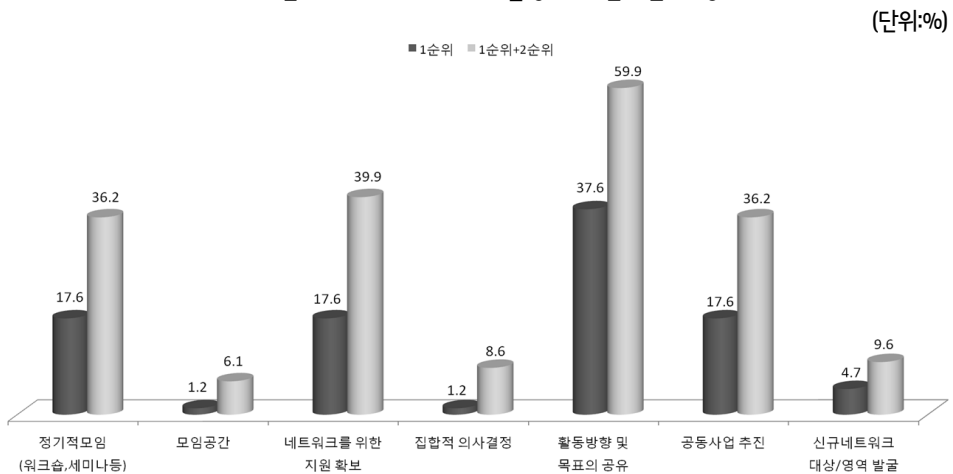
이와 관련한 FGI 조사 결과, 여성 NGO들은 단체 이슈 및 단체의 인적·물적 자원의 필요성, 활동에너지 공급 등을 이유로 여성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체 내부의 인력부족 및 업무량 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네트워크에 대해 심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부족과 시간부족 등의 어려움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이나 여성운동의 흐름을 읽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 년 중 몇 차례는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서울 풀뿌리센터에서 같이 하자고 해도 우리는 지역이 우선이지, 이것은 부차적으로 두게 되는...머리 속에 딱 한계를 지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넘어가게 굉장히 힘든 것 같구요. 우리 지역만 보기도 바쁘고, 거기에 가게 되면 또 일이 떨어져 올 것이라는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사실상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회의 자체가 두렵기도 하구요. 그래서 참석을 계속 미뤘었던 것 같아요.(단체2)

도저히 숨을 쉴 시간도 없기 때문에 활동가 역량강화나 네트워킹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시대의 흐름이나 여성운동도 굉장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 용어들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 년에 몇 번 정도, 몇 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단체13〉

다음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활동방향 및 목표의 공유를 1순위로 제시한 비중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기적 모임, 네트워크를 위한 자원 확보가 각각 17.6%로 뒤를 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 외에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네트워크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IV-28 ■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6. 서울시 사업 참여 및 젠더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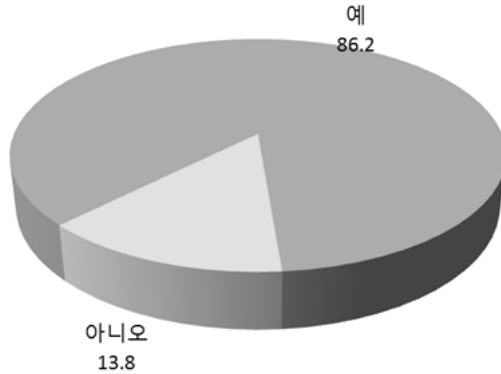
1) 사업 및 거버넌스 참여 현황

서울시가 NGO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여성 NGO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먼저 서울시의 사업 혹은 서울시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설문응답 여성 NGO 중 86.2%가 서울시 사업 또는 정책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

해 참여경험이 없는 단체는 13.8%에 불과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여성 NGO의 경우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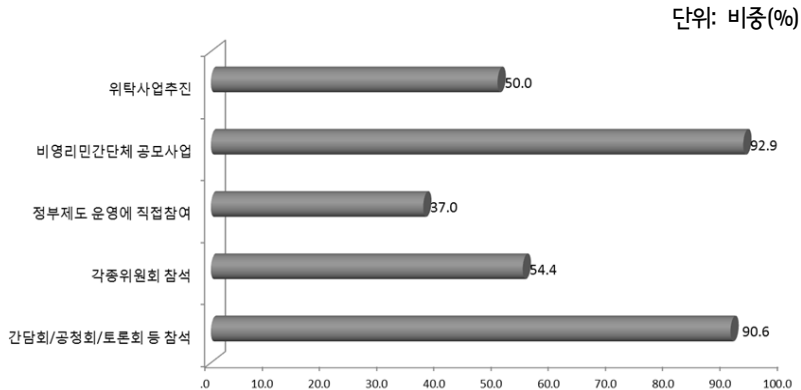
■ 그림 IV-29 ■ 서울시 사업 또는 정책과정 참여 경험

단위: 비중(%)



서울시 사업 또는 정책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결과,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시 협력사업에 참여한 비중이 9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담회/공청회/토론회 등의 참석이 90.6%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와의 협력이 서울시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참여 방식(37%)보다 간담회/공청회 등의 간접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와 여성 NGO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기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별로, 형식적이고 간접적임을 보여준다.

그림 IV-30 서울시 사업 또는 정책과정 참여방식



다음으로 참여방식에 따른 중요성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4.46점). 이는 여성 NGO의 불충분한 자원을 해당 공모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단체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0년대 이후 신생 단체, 예산규모가 작은 소규모 단체,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경우 서울시 사업 참여 등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 NGO가 자원의 불충분성을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해소하려는 측면과 함께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표 IV-11 서울시 사업 및 정책과정 참여방식 중요성

구 분		간담회/공청회/토론회 등 참석	각종위원회 참석	정부제도 운영에 직접참여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위탁사업 추진
전체 평균		4.34	4.00	4.07	4.46	4.12
설립연도	1990년대	4.48	4.15	4.30	4.48	4.05
	2000년대	4.17	3.71	3.77	4.41	4.06
	2010년대	4.50	4.25	4.38	4.44	4.22
예산규모	5천만원 미만	4.56	4.40	4.40	4.50	4.33
	5천만원~1억 미만	4.46	3.92	4.17	4.21	3.40
	1억~3억 미만	4.21	3.78	4.00	4.59	4.44
여성단체 정체성	3억 이상	4.26	4.06	3.88	4.45	4.07
	예	4.38	4.09	4.09	4.51	4.14
	아니오	4.18	3.56	4.00	4.25	4.00

이와 관련하여 FGI 조사결과,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NGO들은 구체적으로 사업 참여를 통해서 단체가 지역기반으로 특정 대상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며,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추진 시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활동이나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하게 될 경우, 사업 추진의 강제력과 서울시 지원이라는 공신력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성장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기반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단체18>은 서울시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였으며, <단체10>은 서울시 사업 참여를 통해 단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예산지원과 함께 공신력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명확하게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혜택이 라던가. 효과라던가 전달되었는지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 내부에서는 지역기반해서 어떤 대상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역기반으로 올하는 기점을 잡은 시기인거죠.<단체18>

2014년도 사업내용으로 잡은 내용을 프로젝트로 제출해가지고 그거를 시행을 하니깐..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서울시의 공신력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예산도 지원받으면서 하니깐 좋죠. 큰 도움이 되죠, 사실.<단체10>

조사대상 단체 중에는 정부와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여성 NGO가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단체3>은 행정이 정책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 NGO들이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정책제안까지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저희는 거버넌스는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체라는게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정부가 긴장하지 않는거죠. 압력단체로서의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이제 뭔가를 바꾸기는 너무 어려운데, 결국은 행정 쪽은 다 정책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정책에 입김을 넣을 수 없다면 이게 힘들 더러구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되거니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제안해서라도 그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뭘 제안해서까지는 일을 하자고 못하지만...<단체3>

구체적인 거버넌스 실체를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보건 및 안전활동, 교육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보건소, 지방정부, 지역교육청 등과 거버넌스 형태를 띠고 있는 한 단체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역 내 활동 및 사업에 있어서 거버넌스 형태를 가져가는 것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한다.

자료를 보면 안 해 본 거 없이 다 해본, 그래서 지금은 뭘 해도 식상한 단체로서는 20년이 되니까 고령화가 되더라구요. 회원들도 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부진하다가 3년 전부터 서울시가 NGO를 어떤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형태를 띠는 것을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보건사업에 참여하면서 여성예방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보건소라는 것이 굉장히 벽이 높았어요. 이쪽이 거의 거버넌스를 해보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갑을관계처럼 힘들었는데 여성건강사업하면서 보건소 공무원하고 지금은 실무자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단체2〉

서울시와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책제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도 있었다. 서울에 본부 형태로 있는 이 단체는 서울시와 모니터링 사업을 4년째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단체회원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을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여 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서울시에 피드백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여성 NGO들이 지역 활동뿐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거버넌스의 참여자임을 의미한다.

여성 쪽은 4년 전부터 모니터링사업을 서울시와 하고 있어요. 일반 여성들 한 50명 정도를 회원을 포함해서 모집해서 그 분들을 교육 시키고 주제를 가지고 그룹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마지막에는 정책 모니터링 결과와 정책 제안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에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제안한 부분들이 제대로 됐나를 점검하는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4년차 계속 하고 있고...〈단체3〉

서울시와의 거버넌스에 참여한 여성 NGO들 중에는 거버넌스가 가시적인 행정수단으로 여성 NGO들이 동원되거나 형식적인 주체로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여성 NGO들이 정부와 거버넌스를 할 때 젠더 개념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단체 내부적으로 볼 때, 정부가 거버넌스의 상대로 인정하는 수준은 단체 대표자급이어서 수평적인 단체운영의 특성 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는 공무원과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의 이해가 좋은 분이 있고 안 좋은 분이 있어서 젠더 거버넌스만 해도 젠더적 관점 있으신 분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역시 가시적인 행정의 수단으로 보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약간은 이용되는 느낌, 동원되는 느낌이 있는데...제 개인의 생각은 그래요. 만약 젠더 거버넌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그나마 소통의 공식적 창구마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계속 두드리고 우리 안전장치 해 달라 하면서 훨씬 더 통로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단체5〉

되게 피곤해요 사실상..그래서 일상을 같이 해야 되나 생각하면 너무 친해지니까 사실상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판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 주게 되니까. 한 두번 넘어가주다 보면 NGO가 뭐하는 건가? 보조자야? 비서관이야? 라는 회의가 왔어요. 그들은 계속 요구를 하죠. NGO가 끼면 모양새든 아이디어든 어쨌든 좋아지니까 거저 가려는 게 있어서...이런 부분에 자존심을 세우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단체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 내부조직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데, 젠더 거버넌스를 하기도 하지만. 특히 거버넌스를 했을 때 젠더 개념이 빠져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부분에 유념을 해야 하고 무조건 할 건 아니고 고 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단체2〉

풀뿌리 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이슈가 되고 관심이 가고 할 때는 서울시든 대한민국이든 여가부이든 이슈에 따라 어디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거니까.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이때 저희가 불편한 게 많아요. 우리 안에서 팀장, 대표, 센터장급이 오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수평구조라 누가 가든 별 상관 없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 관여적인 것이 될 때에 똑같은 적용이 되요. 〈단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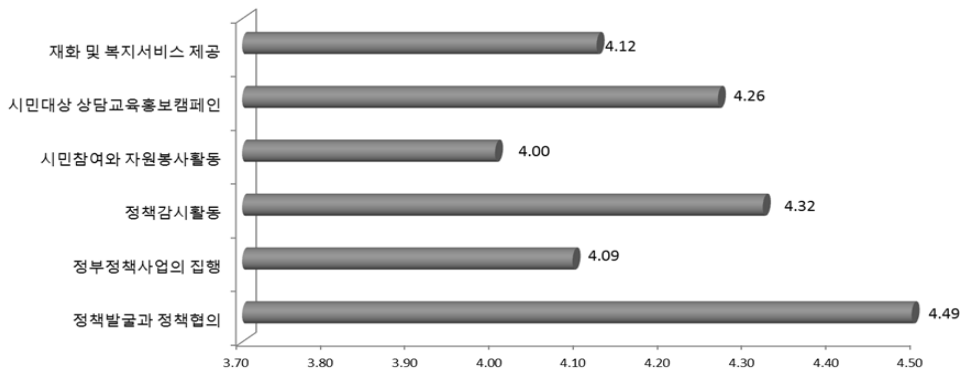
또한, 조사대상 단체 중에는 여성단체들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마련해 주는 부분을 요청하였다.

특히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NGO들 특히 여성단체들의 역할들을 반드시 좀...어떤 걸 할 때라도 정부부처의 어떤 위원회에라도 만약에 들어갈 어떤 자리들을 좀 계속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단체들은 열심히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체3〉

2) 실질적 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서울시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설문 의 경우, 정책발굴과 정책협의를 4.49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정책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및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여성 NGO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정책감시활동이 4.32점, 시민대상 캠페인이 4.26점 등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정부정책사업의 집행이 4.0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과 사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로 여성 NGO의 기능을 한정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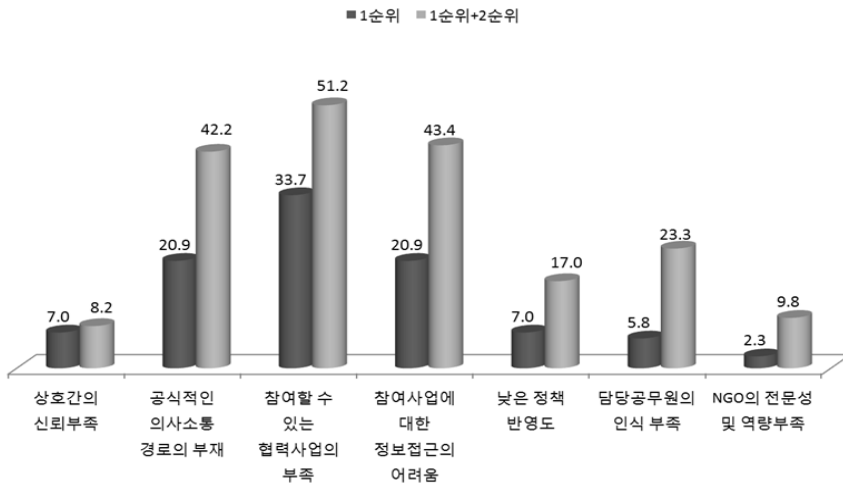
■ 그림 IV-31 ■ 서울시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 : 점수별



서울시와의 협력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참여가 가능한 협력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1순위로 제시한 비중이 33.7%였으며, 다음으로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의 부재와 참여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여성 NGO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유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상호간의 신뢰부족을 지적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여성 NGO간 협력의 경우 신뢰의 문제라기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장(場)의 부족,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부족 등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 그림 IV-32 ■ 서울시와의 협력에 있어서 어려운 점

단위: 비중(%)



이와 관련하여 FGI 조사 결과,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NGO들은 서울시 사업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와 여성 NGO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 사업을 대등하게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여성 NGO를 파트너로 대하지 않을 경우 돈을 받고 사업을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을인가? 나는 파트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오래갔어요. 그 사건이 저한테는 내가 지역에서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돈 받는 사람이었구나. 그 느낌이 오래가서 어려웠어요. <단체7>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NGO들은 파트너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을 함께 구상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지역(마을)에 필요로 하는 부분,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울시가 듣고 이를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23>은 서울시와 ‘소통의 장’을 통해서 이 사업을 왜 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지자체와 직접 협약하여 사업도 만들 수 있어야죠. 기획하고, 근데 다 정해져있죠. 그게 다 반사인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거를 자꾸 마을사업에 가지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 어떤 마을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기획의도부터, 기획서부터 추진하는 과정까지 꼭 같이 협의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단체4〉

서울시와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해요. 서류상으로 단순히 평가받기보다는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듣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지점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단체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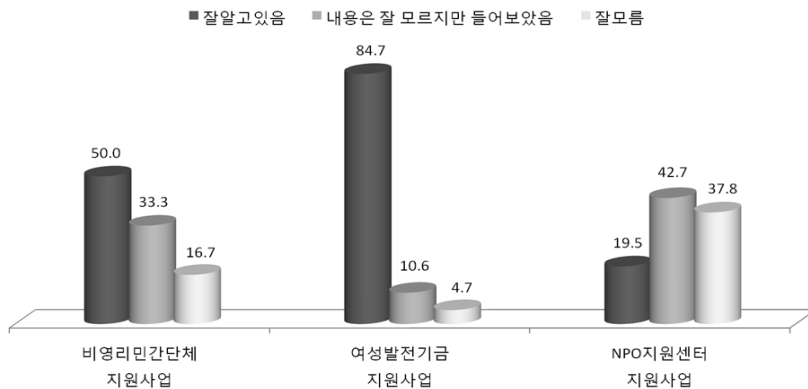
3)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여성 NGO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NPO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 NGO의 특성상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 단체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84.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응답단체의 50%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NPO 지원센터의 사업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가 안 되며, 이름만 들어본 경우는 42.7%, 잘 모른다는 응답이 37.8%나 차지하였다.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NPO 지원센터의 경우 아직 설립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모르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참여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NPO 지원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오직 13.9%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대부분의 응답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83.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절반의 단체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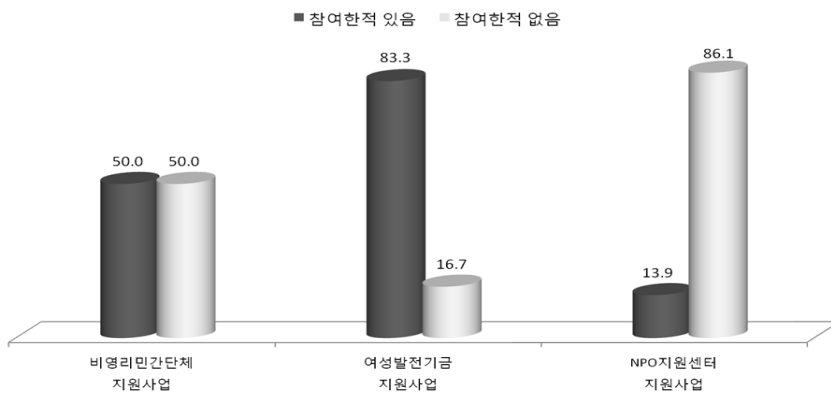
■ 그림 IV-33 ■ 민간단체 지원 사업 인지도부

단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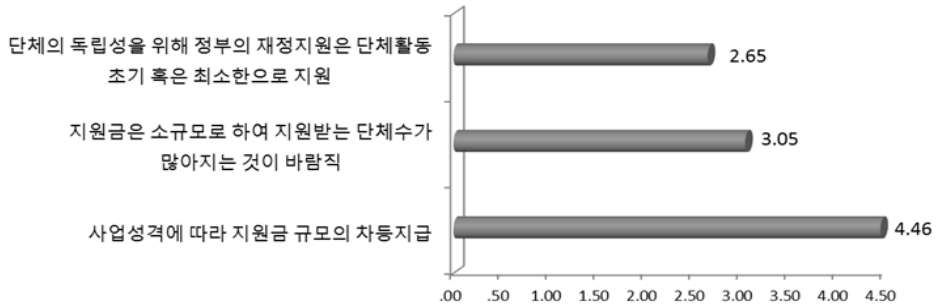
■ 그림 IV-34 ■ 민간단체 지원 사업 참여경험

단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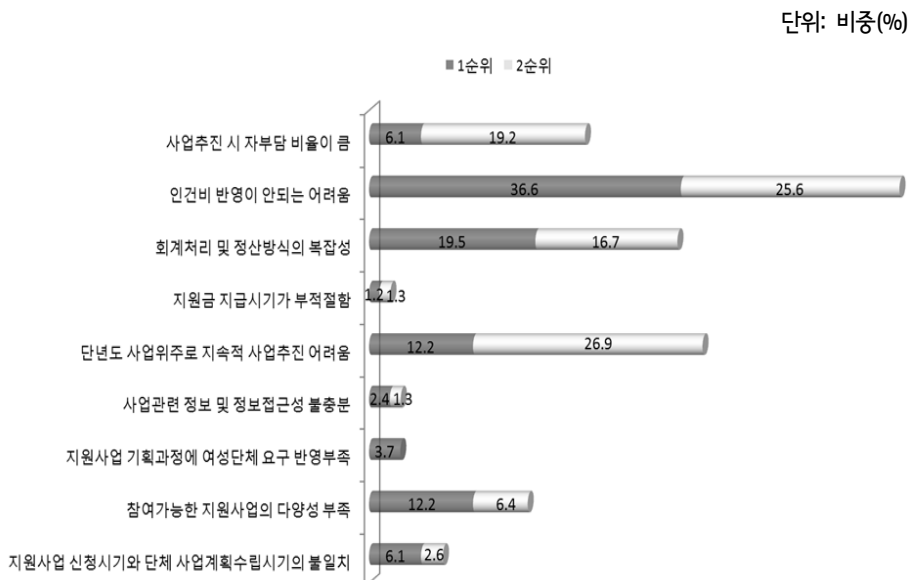
서울시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지원규모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4.46점). 현재 공모지원 사업이 사업의 성격, 단체의 성격이 고려되지 않고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여성 NGO의 효과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규모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그림 IV-35 ■ 서울시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지원규모



지원 절차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재정 지원의 경우 사업비만 허용이 되고, 인건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단년도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NGO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성격에 따라 단년도를 포함하여 다년도 사업도 설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 뒤로 회계처리 및 정산방식의 복잡성, 사업추진 시 자부담 비율이 큰 문제, 사업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 그림 IV-36 ■ 서울시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지원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FGI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의 경험이 있는 여성 NGO들은 공통적으로 1년 단위 사업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단기간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 서류작업의 방대함 등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이벤트로 사업비를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했으면 한번 사업비를 줬으면 저는 최소한 3년은 쥐야 한다고 봐요. 뭐가 이렇게 물이 끓다가 마는 것처럼, 1년만 하고 그런 어떤 연속성에 대한 가치 이런 거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중과 연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단체15〉

서울시가 몇 년차 사업, 이 사업을 바라보는 건 기본적으로 몇 년을 이 관점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의 지속성 부분에 있어서...〈단체14〉

지원사업의 경우 성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해하고 나서 바로 성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들도 계속 후속 이슈를 뒤로 미루게 되는 거고, 성과를 굉장히 많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 것도 있어요.〈단체17〉

또 하나는 페이퍼 워크에 있어서 좀 심플하게 하면 어떨까? 저희가 보고해야 하는 보고서 때문에도 사업을 놓아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줄여주면 여성단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단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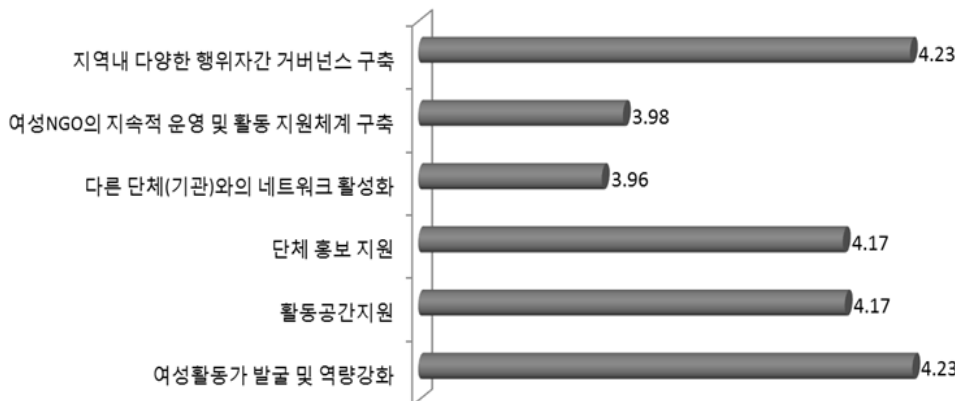
위의 사항과 함께, FGI 조사에서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NGO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해결되기 원하는 부분은 사업에 활동가의 활동비 또는 인건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가에게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여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제기하였다.

근데 솔직히 많은 일들이나 많은 기획서를 쓰고 제출하고, 좋은 일을 하려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두명은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 한 두명조차 둘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건비가! 프로그램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한명분에, 많지는 않고 적은 수량만이라도 그렇게 인건비가 좀 책정이 되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단체10〉

7.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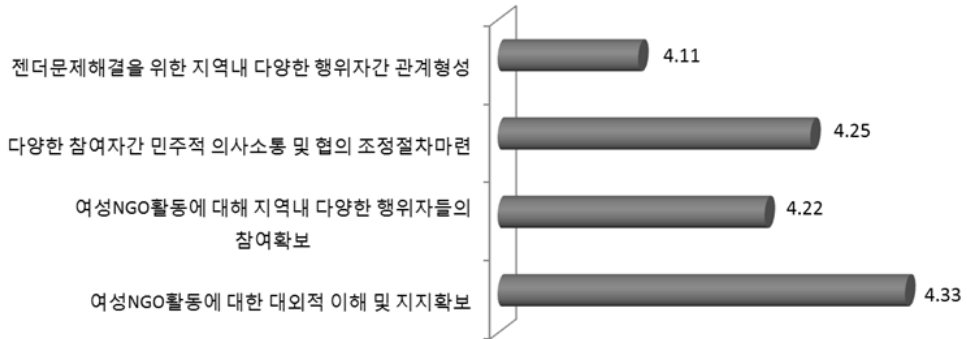
여성 NGO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책수요를 조사하였다. 먼저 크게 거버넌스 구축, 지원체계, 네트워크, 홍보, 공간, 역량강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 NGO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지방정부 등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들간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4.23점)과 여성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4.23점)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홍보(4.17점)와 공간지원(4.17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와의 네트워크나 지원체계 구축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 그림 IV-37 ■ 여성 NGO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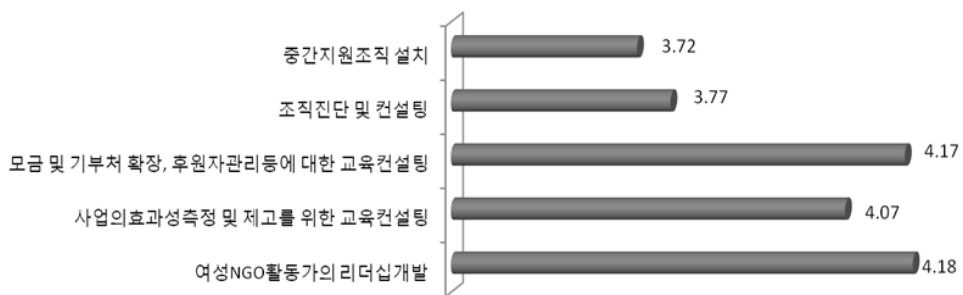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간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여성 NGO활동의 대외적 이해 및 지지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4.33점), 다음으로 민주적 의사소통과 협의 및 조정절차 마련이 4.25점, 여성 NGO활동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확보가 4.22점, 젠더문제해결을 위한 관계형성이 4.11점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IV-38 ■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간 거버넌스 구축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다음으로 여성 NGO의 지속적 운영 및 활동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NGO 활동가의 리더십 개발이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모금 및 기부처 확장, 후원자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4.1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NGO의 지속적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적 자원 확보를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진단 및 컨설팅과 서울시 NPO 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도 3.77점으로 보통수준 보다 높은 필요성 인식을 나타냈다.

■ 그림 IV-39 ■ 여성 NGO 지속적 운영 및 활동 지원체계 구축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이와 관련하여 FGI 조사 결과, 여성 NGO들은 후원확보를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얻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단체가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작은 단체들은 사람들이 접근하

기가 어렵고 후원 회원이 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후원모집을 위한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모금 및 후원 관련 교육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 시 소규모 단체, 즉 여성단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10>은 후원 관련 교육을 들은 경우 종합병원 등 대규모 조직의 후원 성공사례를 들었으나, 이는 오히려 괴리감만 조성된다고 하였다. 여성 NGO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내용, 즉 실질적이며 실속 있는 모금 및 후원자 관리 방법 등으로 이에 맞는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모금이나 후원 관련된 교육을 들으러 가면 거기에 모금이나 후원에 성공하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재단 아니면 종합병원, 그런 데서 기획한 거를 보면 어떤 커다란 건물을 빌려서 거의 막 무슨 파티 식으로, 그런 거를 대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규모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뿐더러, 교육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그렇게 괴리가 생기는 거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조그만 힘없는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정말 실속 있는 모금방법이나 그런 후원방법 그런 거를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그런 교육은 배울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단체10>

또한 여성 NGO들은 단체의 건강성을 위해 현재의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였다. <단체2>는 단체에 들어온 실무자들이 활동을 하다가 실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성들, 이상한 문화에 대해 어려워하거나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단체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성단체들 중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인지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단체4>는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의 특성상,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고, 이로 인해 더디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라는 것이다. 여성 NGO들에게서 나타나는 내부적 운영의 특성을 진단하고 강화시킬 부분은 강화시켜나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변화의 노력들이 요구되므로, 이를 진단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애! 이게 우리만의 문화가 이상하게 형성이 된 건가? 아니면 다른 데도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어려워하나? 요즘은 그런 것도 큰 어려움이예요, 그런 이런 이상한 문화가 자리 잡는 거에 대해서, 운동이 지속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단체2>

제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어쨌든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걸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는 건 저희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와, 더디게 이뤄지는 점이에요. 무거워요. 뭔가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게 어떤 땐 장점이기도 하고 어떤 땐 단점이 되기도 해요.<단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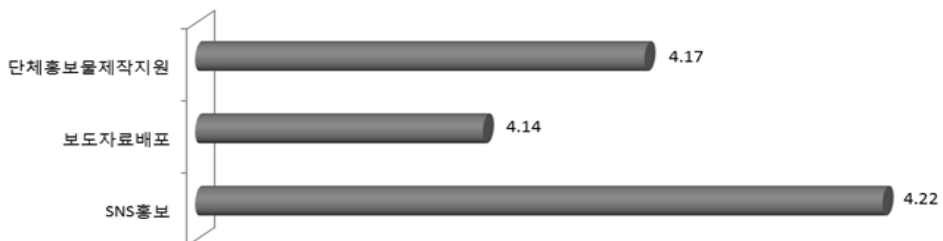
다른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 NGO간 공동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 수요가 3.98점, 네트워크 참여형태의 다양화가 3.97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여성 NGO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대안이 여성 NGO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그림 IV-40 ■ 다른 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단체 홍보 지원과 관련하여, SNS 홍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4.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체홍보물 제작 지원이 4.17점으로 나타났다.

■ 그림 IV-41 ■ 단체 홍보 지원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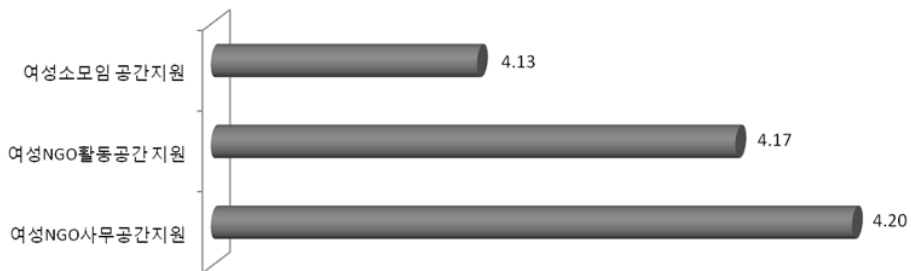


단체 홍보지원과 관련한 FGI 조사 결과, 여성 NGO들은 단체 활동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단체19>는 단체 활동을 알리고 단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활동을 알리고, 우리 활동이 얼마나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 알리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됨.(단체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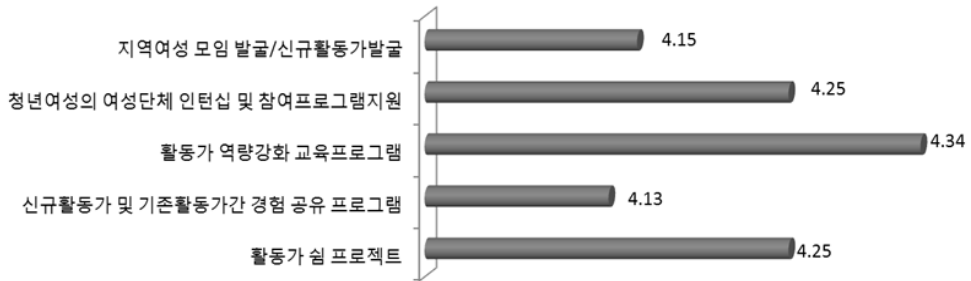
활동 공간 지원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사무공간의 필요성이 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회의 장소 등 활동공간이 4.17점, 동아리 등 여성소모임 장소 필요성이 4.1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공간과 관련하여 여성 NGO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42 | 활동 공간 지원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여성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4.34점으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청년여성의 참여프로그램, 활동가쉽 프로젝트가 4.2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그림 IV-43 ■ 여성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관련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활동가 역량강화에 대한 FGI 조사결과, 여성 NGO들은 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재정뿐 아니라 활동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활동가 확보의 어려움이 활동가 인건비 등 여러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으며, 작은 단체들은 활동비 등 재정적 이유 외에도, 활동가 모집을 위한 홍보, 모집된 활동가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이들을 활동가로 키워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작은 단체에서 활동가를 모집부터 양성까지 진행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어려운 일이며, 무엇보다도 활동가 모집을 위한 홍보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단체는 여러 여성 NGO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가 수요에 맞춰 일괄적으로 활동가 모집 및 교육, 양성 등의 과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작은 단체들이 홍보하고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그분들을 활동가로 키워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홍보해서 모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여러 단체들 중에 활동가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서울시가 일단 한꺼번에 같이하고, 그거와 관련된 단체들하고 같이 짜서 한 다음에, 그분들이 관련된 전문성 분야 별로 관심 있는 부분에 같이 가서 활동할 수 있게 연결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체18>

또한, 많은 단체들은 현재 NGO가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으며, 대학 졸업과 동시에 활동가로서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단체21>은 활동가들은 활동가간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활동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활동가 대상 교육 시 ‘활동가의 언어’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여성단체 활동가 혹은 여성주의 활동가를 키우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이제는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은가? 여성단체 쪽은 일반인 참가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프로그램은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계속 활동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여성주의자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한데...〈단체18〉

법률이든 뭐든 아는 범위 안에서 다문화 여성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일하면서 느껴요. 지금도 계속 틈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새로운 정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요.〈단체10〉

활동가는 활동가의 언어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학자들이 자기들만의 용어로 말하면 내 것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말로 풀어내니까 말을 좀 투박했는데 굉장히 와 닿았어요.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지점들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찾아지고...〈단체21〉

여성 NGO들은 활동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교육의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참석가능여부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단체 내부의 활동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 또는 연수로 1명의 활동가가 빠질 경우 이를 대체해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여성 활동가들이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게 현재 여러 명이 할 일을 1-2명이 하다보니까 이 가운데 1명이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만약 빠진다면 대체해줄 인력이 없어서 그런 기회가 있어도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단체10〉

내부 활동가들은 뭔가 외부적인 어떤 교육이나 강좌 같은 거 토론회 등, 그것을 참여하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지금 집회도 가냐 못가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단체16〉

여성 NGO 활동가들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 이들이 전문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신규 활동가 양성을 통해 인력순환이 가능해야 한다. 젊은 세대를 활동가로 양성하는 것은 단체의 분위기 쇄신과 활동 이슈 개발, 기존 활동가의 책임성 강화, 업무 과부하 해결 등 조직 내부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서울에 본부 형태로 있는 <단체3>은 어느 정도 단체의 기반이 갖추어진 경우로, 살아 있는 활동가를 키워내는 ‘만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단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활동가를 인큐베이팅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NGO가 인력의 순환을 통해서 단체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대생 인턴십 프로그램, 활동가 양성 인큐베이팅 역할 등이 요청된다.

살아있는 활동가를 키워내는 부분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여성 시민 활동가들을 1인이든 몇 인이든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하자.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통해 만들어져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 만언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를 밟고 올라가라.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으로 우리의 비전을 잡고 있어서 힘들지만 힘든 와중에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구요.<단체3>

요즘 여대생들이 NGO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구요. 저희 인턴들 돈 하나도 안 주고 밥만 줘요. 점심만 주는데, 올해도 15명 신청을 해서 10명 정도 받아서 일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세대가 좀, 계속 인턴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도 바뀌고 실무자들도 인턴들이 옆에서 일을 같이 하니깐 책임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실무자 교육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잘 해야 저 친구들이 NGO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 바닥에 들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단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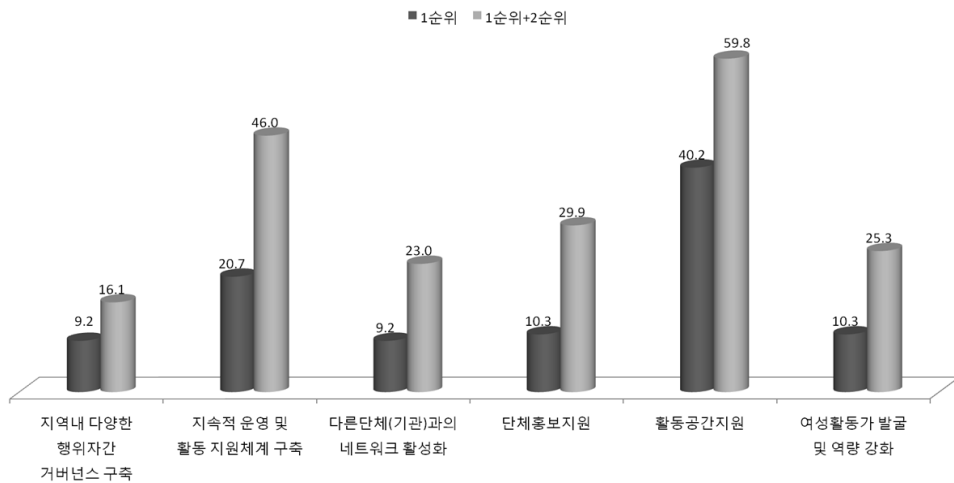
<단체23>은 활동가들의 활동 가치를 인정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활동가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활동가 책 내주기’ 방식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는 활동가의 그간의 활동경력을 인정해주는 퇴직금과 같은 의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의 활동을 기록해서 마을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활동가 책내주기 이것을 기획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 싶어요. 떠나던 안 떠나던 경력이라도 인정 이 되던, 집에 가더라도 내가 부품처럼 쓰여졌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사람한테 퇴직금으로 책 한권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활동에 대한 가치를 무엇이든 인정해줘야 하죠.<단체23>

다음으로 여성 NGO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생단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는데, 신생단체의 특성에 따라 주요한 물적 자원 중 하나인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공간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비중이 40.2%이며, 2순위와 합할 경우 이는 약 60%의 비중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신생단체에 대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20.7%(2순위와 합칠 경우 46%)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홍보 지원, 활동가 역량강화, 거버넌스 구축이 뒤를 이었다. 신생단체의 경우 단체의 자립성이 우선적 초점이 될 필요가 있으므로 네트워크나 거버넌스 구축과 같이 외부적인 역량과 관련된 사항들은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낮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IV-44 ■ 신생단체에 가장 필요한 부분

단위: 비중(%)



8. 소결

서울시 여성 NGO에 대한 실태조사로 설문 및 FGI 조사를 통해 여성 NGO의 일반 현황,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 및 주요 역할과 기능, 활동가의 근무환경, 네트워크, 서울시 사업 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현황,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측면에서 서울시 여성 NGO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본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NGO의 일반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단체의 활동범위, 설립시기 등 단체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2000년대 이후에 신설된 단체의 경우, 상근활동가 수가 오래된 단체의 1/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상근활동가 수 뿐 아니라 자원 활동가 수도 매우 적어서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매우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력규모는 단체의 예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예산이 적을수록 상근 활동가와 자원 활동가 수는 적었으며, 반대로 일정한 활동비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비상근 활동가 수는 많게 나타났다. 단체의 예산확보방법에 있어서도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2000년대 이후 신설된 단체의 경우 정부프로젝트 등 외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단체와 역사가 오래된 단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요구가 상이함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접근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신생단체의 경우 회원모집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회원대상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시간적, 인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자체적인 채용 확보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여성 NGO의 정체성 및 주요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여성단체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경우가 19.3%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은 성 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 목적이 여성 대상 활동이나 여성 회원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중요하게 나타났다. 여성단체의 정체성은 ‘여성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 여성 NGO들은 단체의 주요 역할 및 활동방식, 활동대상에 있어서 마을 및 지역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임파워먼트 향상,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복지·인권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

고 있었다. 여성단체로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단체의 활동방향과 성과에 대해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로서의 활동방향 및 비전, 성과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성 NGO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결과, 활동가들의 근무환경이 모두 열악하지만 특히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설립연수가 짧을수록 근무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신생단체일수록 활동가에게 규칙적인 활동비 지급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단체 예산규모가 클수록 상근활동가의 활동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상근 활동가들에게 안정적인 활동비 지급이 어려울수록 일부 활동가에게 업무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단체 사업 발굴 및 확장, 단체 이슈 발굴 등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여성 NGO 활동가들이 힘을 쏟지 못하고 있는 ‘여성 NGO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찾기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 NGO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여성 NGO들은 여성단체간 네트워크와 정부를 비롯한 중간지원조직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 NGO의 의제에 대한 고민과 인적·물적 자원의 어려움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여성 NGO간 공동협력사업을 개발·구성하고, 활동가 모집·양성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회원모집 등의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요구된다.

다섯째, 서울시 사업 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여성 NGO들은 정책개발과 정책협의 단계에서 서울시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뿐 아니라 공식적이고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와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등 거버넌스 통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여성 NGO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축과 활

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를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여성 NGO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해 및 지지를 높이고, 민주적 소통과 협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활동가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단체 홍보 및 공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책 마련 시 신생단체의 활동 공간 및 단체 운영체계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1. 서울시 여성 NGO 지원 방향
2. 서울시 여성 NGO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결론

1. 서울시 여성 NGO 지원 방향

1) 여성 NGO의 속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방법 변화

여성 NGO에 대한 지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단체 중심의 지원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속성과 요구를 가진 여성 NGO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단체 등록 밖에 있는 단체와 조직들을 지원하는 일은 행정적으로 쉽지 않지만,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풀뿌리 여성단체 및 조직이 여성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여성 NGO와의 협력·지원관계는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적 의사소통 및 협의·조정 창구 마련 등 여성 NGO와의 실질적인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풀뿌리 여성조직은 서울시 가진 사회적 자본

모든 변화는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나 주변부에서 시작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변화는 서서히 일어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다문화가족이 늘어

날 때도 그러했으며, 부모커뮤니티와 육아공동체 같은 모임이 만들어질 때도 그러했으며, 지금도 서울시 어딘가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변화의 싹들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토끼풀이나 민들레꽃처럼 어느 날 생겨나서 뿌리를 연결하면서 번져나가거나 흙씨를 만들어서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조직이 있다.

지금도 풀뿌리 조직에 참여하는 다수의 여성들은 모이고 개방하고 공유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풀뿌리 여성조직들은 푸트넘(Robert Putnam)이 말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 행위자에 의해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며 개인이 이익을 독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적 재산은 아니지만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은 개인 행위자에 의해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사회적 자본이 비축된 공동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훨씬 쉽다.

여성 NGO와 함께 풀뿌리 여성조직은 메트로폴리탄 어디에서도 쉽게 가지기 어려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서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이 근간이 되는 풀뿌리 모임, 조직, 활동 등이 두드러지게 자라고 퍼지고 있다. 서울은 어떻게 번영을 공유하고 지속시킬 것인가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내려면 서울이 가진 특별한 자본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생태와 환경을 살리는 활동 등 서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활동가와 지역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변화뿐 아니라 정책 등 공적 영역의 변화까지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여성운동 및 활동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들의 ‘활동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정책분야 및 세부과제

서울시 여성 NGO의 변화를 반영하고, 풀뿌리 여성조직은 서울이 가진 사회적 자본이라는 방향 하에 정책분야 및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정책분야 및 세부과제

정책 분야	세부 과제	지원 대상	관련 기관
I.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제도 및 사업 개선	1-1.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 : 등록요건 완화 및 인건비 지원 고려	여성 NGO, 풀뿌리 여성조직	안행부, 서울시
	1-2. 서울시 NPO 지원센터 : 젠더 민감성 제고 및 여성 NGO 지원 확대	여성 NGO, 풀뿌리 여성조직	서울시, 서울시 NPO 지원센터
	1-3. 서울시 사업 참여 단체·모임 현황과악 : 풀뿌리 여성조직 및 모임 발굴	풀뿌리 여성조직	서울시,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등
	1-4. 실질적 젠더 거버넌스 구축	여성 NGO, 풀뿌리 여성조직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등
II. 서울시 여성 NGO의 성장 기반 구축	2-1. 서울시 여성 NGO 현장 연구 지원 사업(가칭)	여성 NGO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등
	2-2. 풀뿌리 여성조직의 젠더이슈 확산	풀뿌리 여성조직	서울시, 여성 NGO 중간지원기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등
	2-3. 서울시 여성 NGO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여성 NGO, 풀뿌리 여성조직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등
III. 서울시 여성 NGO의 활동 기반 지원	3-1. 여성 NGO의 주요 자원 : 1. 활동가 재생산 지원	여성 NGO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등
	3-2. 여성 NGO의 주요 자원 : 2. 공간공유 허브 구축	여성 NGO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등
	3-3. 여성 NGO의 자생력 확보 : 단체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여성 NGO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등



2. 서울시 여성 NGO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1)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제도 및 사업 개선

1-1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 등록요건 완화 및 인건비 지원 고려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법 제정 이전에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형태에서 해당 법에 의해 등록된 모든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그러나 현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단체로 등록되어야 함.
- 민간단체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음. 이러한 현재 규정은 서울시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풀뿌리 모임, 조직, 활동 등을 담아내지 못함. 모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여성 NGO의 변화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서울시 민간단체 공모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여성 NGO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 사업비 외에 인건비가 제한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활동가로서의 활동 가치를 인정받고 활동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활동비 지급을 가장 우선적인 부분으로 제기함. 따라서 이에 대한 가능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추진 방안

- 단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상시 구성원 100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단체 및 모임들 중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어려워 사업영역의 확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현재 서울시 여성 NGO 가운데 2000년대 이후에 신설된 단체의 경우 상근·비상근 활동가와 자원 활동가 수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그 수가 100인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인 서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상위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므로 상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민간단체 등록요건 중 상시 구성원 수에 대한 상한선 재조정
-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 사업 추진 시 활동가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내용 추가 또는 개별 사업 추진 시 일정 부분 활동비 지급 비율 추가 제시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는 2013년 NPO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NPO의 성장토대 마련 및 시민사회와 서울시와의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NPO 활동을 지원함. 이를 위해 기존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소규모 모임 및 개인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음(서울시 NPO 지원센터, 2014년 사업계획안).
- 현재 서울시 NPO 지원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 NGO는 총 66개로, 서울시 등록 여성 NGO(총 108개)의 61% 수준에 그치고 있음. DB 구축 시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여성단체를 추출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센터 구성원의 전반적인 젠더 민감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함.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NGO들은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20% 수준), 실제 센터의 지원사업 참여 경험은 더 낮은 수준(13.9%)으로 나타남.

□ 추진 방안

- 공익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과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시 여성 NGO들도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전체 여성 NGO에 대한 DB를 구축함
- 서울시 여성 NGO들이 NPO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마련 및 이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의 젠더 민감성 제고를 위해 사업 기획 시 여성 활동가 및 젠더 전문가의 참여 확보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여성 NGO들은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돌봄·양육, 복지, 교육, 마을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도시생활의 욕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들과 지원·협력관계에 놓여 있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참여형태는 주민모임과 단체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체 사업에서 비영리단체가 참여하는 비중은 2012년 23.1%, 2013년 13.1%, 2014년 8.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지역 단위에서 주민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필요를 가지고 스스로 모이는 모임을 통해 기존의 시민사회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모임의 대부분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조직과 지역여성모임을 발굴하고 이들 모임 및 단체의 활동이 지역 내 여성문제 해결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추진 방안

- 신생여성모임 및 조직들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여성모임 및 단체에 대한 현황파악 필요. 이를 위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서식의 변경을 제안함. 단체 활동가 및 회원의 성별 비율, 주민모임의 여성비율 등의 기재가 가능해야 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대상이 주민 모임이지만, 단체 활동가들이 지역 내의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에 대한 거부감, 오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내 마을활동가에 대한 성 인지적 교육 지원을 제안함.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여성 NGO들은 서울시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책개발과 정책협의 단계부터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위탁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
-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와 정부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등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상시적인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이를 위해서는 여성 NGO들의 활동 영역과 관련 있는 정부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며, 앞선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여성 NGO들은 여성복지, 고용, 다문화, 가족, 인권, 생태·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 정책개발 및 협의 단계에서 여성 NGO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주도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제안하고 행정과의 논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뿐 아니라 사업대안을 함께 발굴해 가는 과정으로 그동안 행정 중심적인 거버넌스와 다른 접근임.
- 또한 현재 서울시 여성 NGO 중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과 지역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현상은 활동범위에 따른 단체 간 상호 이해부족뿐 아니라, 서울시 및 자치구 입장에서 볼 때 거버넌스 대상 단체의 범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단체들의 다양한 참여기회가 제약받지 않도록 풀뿌리 여성조직의 참여 기회 확대조치가 필요함.

□ 추진 방안

- 실질적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 마련 : 여성 NGO들의 여성복지, 고용, 다문화, 가족, 인권, 생태·환경 등 관련 정부 위원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정책 개발 및 협의단계에서 여성 NGO의 이슈제기의 기회 제공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젠더 거버넌스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 인지적 정책대안 발굴 및 협의과정 참여
- 서울시 및 자치구 대상 여성 NGO들의 거버넌스 이원화 체계 개선을 위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마련

2) 서울시 여성 NGO의 성장 기반 구축

2-1

서울시 여성 NGO 현장 연구 지원 사업(가칭)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실태조사 결과, 현재 서울시 여성 NGO들은 여성단체로서의 의제발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로서의 활동방향 및 성과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방향잡기의 어려움이 큼.
- 여성단체의 이슈 발굴은 개별적인 단체가 접근하여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며, 여성단체들이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함.

□ 추진 방안

- 서울시 여성 NGO들이 서울 지역 여성들의 요구와 여성문제를 발굴하고, 여성 NGO의 핵심 이슈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 여성 NGO 현장 연구 지원 사업(가칭)’을 기획·추진할 것을 제안함.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비롯한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한 분야로 ‘서울시 여성 NGO 현장 연구 지원사업’을 상정해 여성단체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구축할 수 있음.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서울시 여성 NGO들은 마을 및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주요 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문제, 생활 속 의제를 다루면서 젠더 이슈를 지역 내에서 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이슈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나타냄.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경우가 19.3%에 그쳤지만 풀뿌리 생태계 조사 등에서는 여성 NGO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낮게 나타남.
-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조직이 여성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여성주의 가치’를 지역 내에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디더라도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임.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의 젠더이슈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추진 방안

- 풀뿌리단체들이 지역 내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실시
- 마을공동체 백서, 풀뿌리단체생태계조사 등에 여성주의 관점을 가진 연구자가 합류해 기존의 사업기조와 방향에 젠더 마인드를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여성주의 정체성을 가진 여성단체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 지역 풀뿌리 단체 활동 중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기회 마련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여성 NGO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90.9%, 실제 네트워크 구축 여부도 98.9%로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 및 구축 상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네트워크 형태는 비정기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이 4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자원의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서울시 여성 NGO들은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단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여성단체의 의제 발굴 및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공동 해결노력, 활동가들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활동가간 교류 및 관계망 형성 등을 제기함.
-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여성 NGO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체간 교류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여성 NGO들의 주요 문제를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추진 방안

- 여성단체의 주요 이슈 발굴 및 주요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간 토론회, 간담회 개최 추진
- 후원회원 모집 및 모금 행사의 공동 기획·추진, 여성 NGO 활동가 모집·양성·교육에 대한 단체간 공동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3) 서울시 여성 NGO의 활동 기반 지원

3-1 여성 NGO의 주요 자원: 1. 활동가 재생산 지원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여성 NGO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활동 인력 및 재정, 공간 등 자원의 문제임. 이러한 어려움은 지역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생단체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이러한 여성 NGO들의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여성 활동가 발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음. 그러나 현재 여성 NGO들은 활동가 재생산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큼.
- 현재 여성 NGO들은 인원수가 적고 업무는 많아서 체계적으로 활동가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도제식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추진 방안

-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신규 활동가 발굴을 위한 청년여성 공공활동 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 여성 NGO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아젠다 교육, 리더십 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 활동가 직무교육 시 신규 활동가, 중견 활동가, 대표급 등 각 직급 및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여성 NGO들은 활동가 및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큼. 실태조사 결과, 사무공간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97.7%로 거의 모든 단체가 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공간 소유형태로 볼 때 월세 비중(4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로 인해 단체의 재정적 부담의 요인이 됨.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NGO를 대상으로 공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한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공간 공유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시설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보가 여성 NGO들에게 제공되는 통로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허브 가운데 공간 공유의 경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 주차장 공유까지 공공서비스 예약서비스를 통해 시설 공유를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울시 여성 NGO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공간에 대한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공유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 방안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의 공간지원 사업뿐 아니라 지역 내 도서관, 종합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시간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등 여성 NGO들이 활용 가능한 전체 공간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공간공유 허브 구축 제안
- 서울시 여성 NGO들은 소모임 및 활동 공간 보다 사무공간에 대한 필요가 더 크므로, 공간공유 허브 구축을 통해 정보제공 시 사무공간, 소모임 및 활동 공간 등 공간유형별 정보 제공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여성 NGO는 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원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김. 그러나 현재 여성 NGO들은 후원회원을 통한 단체운영보다는 정부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국단위에서 활동하는 단체보다 서울 및 지역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소규모 신생단체일수록 회원모집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성 NGO들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여성 NGO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해 및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체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단체 전반에 대한 진단, 그리고 회원모집 및 후원자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까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여성 NGO들은 단체의 활동 및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매우 크게 제기하고 있음.

□ 추진 방안

- 여성 NGO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SNS 홍보, 단체 홍보물 제작 지원
- 여성 NGO들의 활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단체 활동에 맞는 진단 툴 마련 및 컨설팅 제공
- 소규모 여성단체에 맞는 회원모집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참고문헌

- Powell, Walter W.(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2. 295-336.
- Kearns, K. P. (2000). *Private sector strategies for social sector success: The guide to strategy and planning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Jossey-Bass.
- Salamon, L. M.(1987). Of Market failure, Voluntary failure, and Third-party government: Toward a theory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16(1-2), 29-49.
- 김기선미(2006). "여성연합,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한국사회포럼 2006. 서울. 3월.
- 김은경(2005). "한국 진보 여성운동의 국가참여 형태에 관한 연구: 페모크라트의 등장과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정한 외(1985).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 마경희(2010). "성평등 전략으로서 성주류화의 딜레마와 위험들". 『국가와 젠더』, 한울.
- 박인혜(2009).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의 인간화' 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141-174.
- 서두원(2012). "젠더 제도화의 결과와 한국 여성운동의 동학". *아세아연구*, 55(1), 162-278.
- 서미라(2002).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태운 외(2012). 『경기도 여성단체 활동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오장미경(2005). "한국 여성운동과 여성 내부의 차이". 진보평론, 20.
- 원숙연, 박진경(2006).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4), 85-124.
- 윤정숙(2004).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창작과 비평, 125.
-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21-338.
- 이효재(1996).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증보판)』, 정우사.
- 장미경(2006). 『한국 여성운동과 젠더정치』, 전남대학교출판부.
- 정영애(2012).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와 지역NGO의 역할", 1-16, 서울여성가족재단

편.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II: 지역의 중심, 여성 NGO』
 정현백 외(1998). 『경기도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조이여울(2006). “‘진보적 여성단체’의 위기”. 한국사회포럼. 서울. 3월.
 한정자·이상원(2004). 『정부와 여성단체의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홍미희·윤연숙(2007). 『인천지역 여성단체의 현황과 여성정책과정에서의 역할』, 인천발전연구원.
 허성우(2006). “한국 ‘진보’여성운동 위기의 재구성: 포용적 연대의 여성주의 정치학”. 한국여성단체연합 편. 『성평등 사회를 위한 진단과 좌표찾기: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찾기 위한 비전보고서』.
 『2014 정책토론회 백서』 서울시.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 서울시.
 『2013 연차보고서』 아름다운재단.
 『2012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 서울시.
 『풀뿌리 여성모임 지원사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16차 정기총회 보고서』 한국여성의 전화(2003).
 여성발전기본법.

Abstract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women's NGOs in Seoul, and ways to support their growth

Kim Hee Kyung

Policy Research Department

Research Fellow

This study aims to explore status and activities of Women NGO in Seoul and to suggest improvements of policy supports for the NGO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explores Women NGOs registered i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Seoul and analyzes government support policies i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econdly, it carries out survey targeting Women NGO activists in order to discover Women NGOs activities, their identities as Women NGO, difficulties for network building, and improvement requirements for Women NGOs'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 it suggest support policies such as improvements related acts and institutions, improvements for relationship between Seoul government and Women NGOs, and supports for network among Women NGOs.

The survey and FGI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of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between the Women NGOs depending o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NGO activities and scope, time of their establishment. Startup NGOs, established since 2000 have less both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n NGOs with long history. In terms of NGO budget, they tend to depend more on external support particularly governmental support. In regard to identity and predominant role of Women NGO, organizational purpose such as gender e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organizational membership. In addition, we find out that

Women NGO activis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network among NGOs and need for collaboration with public bodi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 some policy suggestions. First of all, in terms of governmental NGO support, it suggests relaxa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improvement of gender sensitivity of Seoul NPO center. Secondly, it proposes some research projects and programs in order to explore women's needs, women's problem and gender issues of grass roots organization for foundation of NGO growth. Lastly, there are some supports for Women NGOs activity infrastructure such as shared space, public relations and consulting services.

Key word: Women NGO, gender governance, gender equality

부록

서울시 여성 NGO 대상 설문지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5. 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 5-1. 상근활동가 수: _____명, 5-2. 상근활동가 중 여성 수: _____명,
5-3. 비상근 활동가 수: _____명, 5-4. 비상근활동가 중 여성 수: _____명,
5-5. 회원 수(월평균): _____명,
5-6. 회원 성별 비율: 남 _____%, 여 _____%
5-7. 자원 활동가수(월평균): _____명

6. 귀 단체의 1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2013년 기준, 프로젝트비 포함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③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⑥ 3억원 이상

7. 귀 단체는 예산 확보의 방법이 어떻게 되십니까? 각각의 방법에 해당되는 비중을 적어주십시오.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 7-1. 후원금 _____%, 7-2. 자체사업수익 _____%,
7-3. 회 비 _____%, 7-4. 정부·지자체 지원금(프로젝트 등) _____%
7-5. 민간단체(공익재단 등) 지원금 _____%,
7-6.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등 별도 수익구조 _____%
7-7. 회비의 경우,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_____원

8. 귀 단체의 지출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비 비중: _____%

9. 귀 단체는 사무공간이 있으십니까?

- ① 예(→9-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10번 문항으로)

9-1. 귀 단체 사무공간의 소유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자가(단체) 소유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_____

여성단체의 정체성 및 주요 역할 · 기능

10. 귀 단체는 여성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10-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10-2번 문항으로)

10-1. 귀 단체가 여성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회원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② 활동가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③ 여성을 대상으로 활동하므로 ④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므로
 ⑤ 여성 관련 이슈를 다루므로 ⑥ 아동·가족 관련 사업·활동을 하므로
 ⑦ 기타:

10-2. 만약 여성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단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동의하는 정도				
	긍정	—	보통	—	부정
11-1. 여성의 지위향상	⑤	④	③	②	①
11-2. 여성의 입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 등)	⑤	④	③	②	①
11-3. 여성의 복지증진(취약계층여성 지원 등)	⑤	④	③	②	①
11-4.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등)	⑤	④	③	②	①
11-5.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⑤	④	③	②	①
11-6.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경제역량 강화	⑤	④	③	②	①
11-7. 여성의 건강권 확립	⑤	④	③	②	①
11-8. 통일·평화운동	⑤	④	③	②	①
11-9. 생태·환경운동	⑤	④	③	②	①
11-10. 공동체·풀뿌리여성운동	⑤	④	③	②	①
11-11. 기타:					

11. 귀 단체는 여성단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무엇이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2. 귀 단체의 주요 활동 및 사업분야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여성의 지위향상 ② 여성의 입파워먼트를 위한 노력(교육 등)
 ③ 여성의 복지증진(취약계층여성 지원 등) ④ 여성의 인권증진(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등)
 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 ⑥ 여성의 경제자립 및 경제역량 강화
 ⑦ 여성의 건강권 확립 ⑧ 통일·평화운동
 ⑨ 생태·환경운동 ⑩ 공동체·풀뿌리여성운동
 ⑪ 기타:

13. 귀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내용 및 방식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정보수집·연구·조사 ② 정책이슈 발굴 및 정책대안제시 ③ 정책모니터링
- ④ 서비스 제공(위탁사업 등) ⑤ 교육훈련 ⑥ 상담·심리치료
- ⑦ 캠페인 ⑧ 인력양성
- ⑨ 당사자 조직화(한부모, 미혼모 등) ⑩ 기타:

14. 귀 단체의 주요활동 및 사업의 대상은 어떤 여성입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아동 ② 청소년 ③ 청년(비혼) ④ 노인 ⑤ 장애인 ⑥ 저소득층
- ⑦ 한부모 ⑧ 이주민 ⑨ 일하는 여성 ⑩ 마을(지역)여성 ⑪ 기타:

15. 귀 단체는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인적 자원의 부족
- ② 물적 자원의 부족(재정, 공간 등)
- ③ 단체 내부 운영구조의 문제
- ④ 다른 단체(기관)와의 네트워킹(상호작용) 부재
- ⑤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상호작용의 어려움
- ⑥ 단체의 활동방향 및 성과에 대한 고민
- ⑦ 새로운 여성의제 발굴
- ⑧ 기타:_____

15-1. 귀 단체는 위의 어려움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여성 NGO 활동가의 근무환경

※ 다음은 NGO 활동가의 객관적 근무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근 활동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상근활동가가 없을 경우 비상근활동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귀 단체는 현재 상근활동가 및 비상근활동가의 평균 근속연수는 얼마입니까?

16-1. 상근활동가 평균 근속연수: _____ 년,

16-2. 비상근활동가 평균 근속연수: _____ 년

25-3. 귀 단체는 주로 네트워크를 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으십니까?

- ① 비정기적인 정보 및 의견 교환 ② 정기적인 모임 ③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④ 장기적인 공동사업추진, 공식적 계약 등 ⑤ 기타: _____

25-4. 귀 단체는 다른 단체 또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단체의 사업기회·범위 확대 ② 단체에 대한 홍보 효과
 ③ 단체·기관과의 연대의식·관계발전 ④ 커뮤니케이션 개선
 ⑤ 네트워크의 효과 없음 ⑥ 기타: _____

26. 귀 단체는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동의하는 정도				
	긍정	—	보통	—	부정
26-1. 단체 사업추진으로 바빠서	⑤	④	③	②	①
26-2. 내부역량의 부족	⑤	④	③	②	①
26-3. 네트워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	⑤	④	③	②	①
26-4. 네트워크의 매개자가 없음	⑤	④	③	②	①
26-5. 단체의 목적에 맞지 않음	⑤	④	③	②	①
26-6. 네트워크의 대상이 없음	⑤	④	③	②	①
26-7. 정보공유문화·절차의 부족	⑤	④	③	②	①
26-8. 단체의 사업시기·사업내용과 맞지 않음	⑤	④	③	②	①
26-9.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⑤	④	③	②	①
26-10. 기타:					

27. 귀 단체는 다른 단체 또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정기적 모임(워크숍, 세미나 등) ② 모임 공간
 ③ 네트워크를 위한 자원 확보 ④ 집합적 의사결정
 ⑤ 활동방향 및 목표의 공유 ⑥ 공동사업 추진
 ⑦ 신규 네트워크 대상 또는 영역 발굴 ⑧ 기타: _____

35. 귀 단체는 서울시 민간단체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지원규모 측면	동의하는 정도				
	긍정	—	보통	—	부정
35-1. 사업성격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다양화하여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음	⑤	④	③	②	①
35-2. 지원금은 소규모로 하여, 지원받는 단체수가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함	⑤	④	③	②	①
35-3. 단체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은 단체활동 초기 혹은 최소한으로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함	⑤	④	③	②	①

36. 귀 단체는 서울시 민간단체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업절차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사업절차 측면	동의하는 정도				
	긍정	—	보통	—	부정
36-1. 지원사업의 신청시기와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시기가 일치함	⑤	④	③	②	①
36-2.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 분야가 다양함	⑤	④	③	②	①
36-3. 지원사업 기획과정에 여성단체의 요구가 반영됨	⑤	④	③	②	①
36-4. 사업 관련 정보제공 및 정보접근성이 충분함	⑤	④	③	②	①
36-5. 단년도 사업위주로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이 어려움	⑤	④	③	②	①
36-6. 지원금 지급시기가 적절함	⑤	④	③	②	①
36-7. 회계처리 및 정산방식이 복잡함	⑤	④	③	②	①
36-8. 인건비 반영이 안되는 어려움	⑤	④	③	②	①
36-9. 사업추진 시 자부담비율이 큼	⑤	④	③	②	①

36-10. 귀 단체는 위 사업절차 중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 혹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여성 NGO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안

37. 귀 단체는 여성 NGO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	동의하는 정도				
	5	4	3	2	1
37-1.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 간 거버넌스 구축 (여성 NGO-지역주민-지방정부-지역단체 등)	5	4	3	2	1
37-1-1. 젠더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간 관계 형성	5	4	3	2	1
37-1-2. 다양한 참여자간 민주적 의사소통 및 협업·조정절차 마련	5	4	3	2	1
37-1-3. 여성 NGO 활동에 대해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확보	5	4	3	2	1
37-1-4. 여성 NGO 활동에 대한 대외적 이해 및 지지 확보	5	4	3	2	1
37-1-5. 기타:					
37-2. 여성 NGO의 지속적 운영 및 활동 지원체계 구축	5	4	3	2	1
37-2-1. 여성 NGO 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가칭 여성 NGO센터) 설치	5	4	3	2	1
37-2-2. 여성 NGO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및 컨설팅	5	4	3	2	1
37-2-3. 여성 NGO의 재원확보를 위한 모금 및 기부처 확장, 후원자 관리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	5	4	3	2	1
37-2-4. 여성 NGO 사업의 효과성(social impact) 측정 및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5	4	3	2	1
37-2-4. 여성 NGO 활동가의 리더십 개발	5	4	3	2	1
37-2-5. 기타:					
37-3. 다른 단체(기관)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5	4	3	2	1
37-3-1. 네트워크 매개자의 구성 및 지원	5	4	3	2	1
37-3-2. 네트워크 효과성 및 방식에 대한 경험 및 교육기회 제공	5	4	3	2	1
37-3-3. 네트워크 참여형태(주말 또는 근무시간,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다양화	5	4	3	2	1
37-3-4.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여성 NGO간 공동협력사업 개발·구성	5	4	3	2	1
37-3-5. 기타:					
37-4. 단체 홍보 지원	5	4	3	2	1
37-4-1. 단체 홍보물 제작 지원	5	4	3	2	1

37-4-2. 보도자료 배포	⑤ ④ ③ ② ①
37-4-3. SNS 홍보	⑤ ④ ③ ② ①
37-4-4. 기타:	
37-5. 활동 공간 지원	⑤ ④ ③ ② ①
37-5-1. 여성소모임(동아리) 모임 공간 지원	⑤ ④ ③ ② ①
37-5-2. 여성 NGO 활동공간(모임 및 회의 등) 지원	⑤ ④ ③ ② ①
37-5-3. 여성 NGO 사무공간 지원	⑤ ④ ③ ② ①
37-5-4. 기타:	
37-6. 여성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⑤ ④ ③ ② ①
37-6-1. 지역여성 모임 발굴/ 신규 활동가 발굴	⑤ ④ ③ ② ①
37-6-2.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인턴십 및 참여프로그램 지원	⑤ ④ ③ ② ①
37-6-3.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⑤ ④ ③ ② ①
37-6-4. 신규 활동가 및 기존 활동가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⑤ ④ ③ ② ①
37-6-5. 활동가 쉼 프로젝트	⑤ ④ ③ ② ①
37-6-6. 기타:	
37-7. 기타:	

37-8. 선생님께서는 위 내용 중 단체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 37-1.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 간 거버넌스 구축
- 37-2. 여성 NGO의 지속적 운영 및 활동 지원체계 구축
- 37-3. 다른 단체(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37-4. 단체홍보 지원
- 37-5. 활동공간 지원
- 37-6. 여성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 37-7. 기타:

37-9. 선생님께서는 위 내용 중 신생단체에게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 37-1.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 간 거버넌스 구축
- 37-2. 여성 NGO의 지속적 운영 및 활동 지원체계 구축
- 37-3. 다른 단체(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37-4. 단체홍보 지원
- 37-5. 활동공간 지원
- 37-6. 여성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 37-7. 기타:

38. 서울시 여성 NGO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선생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4 정책연구-10

서울시 여성 NGO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김희경·이경숙
발행일 2014년 12월
인쇄처 (주)인디엔피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32-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